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17-01

한·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 협상결과 농업분야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 협상결과
농업분야 영향분석

이 병 훈	연 구 위 원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한 석 호	연 구 위 원
정 대 희	전 문 연 구 원
박 한 울	초 청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이 병 훈	연구위원	연구총괄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FTA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한 석 호	연구위원	영향분석
정 대 희	전문연구원	FTA 협상 결과 분석 및 국별 수출입동향
박 한 울	초청연구원	국별 농업생산 동향

머 리 말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인 WTO/DDA 협상이 지체되면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요국과의 FTA 추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과 FTA를 발효 중이며,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는 발효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2009년 3월에 호주에서 열린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한·호주 FTA는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연구가 진행 중인 12월 12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한·캐나다 FTA는 2014년 12월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한·뉴질랜드 FTA는 2014년 11월 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FTA를 체결해 왔으나,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 4대 농산물 무역국인 호주와는 큰 폭의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며, 양국간 FTA가 발효될 경우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는 축산업 특히, 낙농 강국으로 향후 이들 국가와의 FTA가 발효될시 국내 축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연방 3국과의 FTA를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별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영연방 3국과 FTA가 체결된 양허안을 토대로 주요 품목별 향후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들이 효과적인 농산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 2013년 12월 5일 한·호주 FTA 타결을 비롯하여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었으며, 2014년 11월에는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들은 축산업과 곡물산업이 발전한 국가들로 한·영연방 3개국 FTA가 발효될 경우 특히 국내 축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의 추진은 일부 농산물과 축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FTA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와 축산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간 농산물 교역현황 및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내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임.

[영연방 3국의 주요 생산품목 비교]

- 영연방 3국의 주요 생산품목들 중에서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현황을 비교한 후 수입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품목을 선별하였음.
- 각 국별 농업 생산의 자료를 살펴보면, 영연방 3국은 주로 축산업과 낙농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과일과 채소류의 경우 축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검역상의 문제로 대부분의 과일이 수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지만, 뉴질랜드의 키위와 호박은 국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임.
- 영연방 3국의 소 사육두수는 우리나라 사육두수의 14.8배에 달하며, 쇠고기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15.4배에 달함. 특히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우리나라에 비해

8.3배나 많음. 캐나다 쇠고기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4.7배이며, 뉴질랜드는 2.3배 많은 수준임.

- 호주는 쇠고기 수출량이 생산의 41%를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6%를 수출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전체 생산의 54%를 수출하고 있음.

○ 영연방 3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우리나라보다 1.6배 많으나, 생산이 선진화되어 있어 생산량은 3배 많음. 영연방 3국 중에서는 캐나다가 돼지 사육 두수가 많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도 많음.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2.6배에 해당함.

- 호주와 뉴질랜드의 돼지고기 수출은 미미한 편이며, 생산량의 4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캐나다는 돼지고기 수출량이 생산의 34%임.

○ 영연방 3국의 닭 사육두수는 27만 수이며, 사육두수는 우리나라의 1.8배이지만, 닭고기 생산량은 3.6배임. 이는 우리나라 계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임. 그러나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하여 닭고기 수출량은 많지 않고 수입을 많이함.

○ 또한 영연방 3국의 축산물 국제경쟁력을 살펴보면,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RCA 지수가 1이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는 캐나다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닭고기는 영연방 3국 모두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영연방 3국 모두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됨. 특히 쇠고기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높아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됨. 돼지고기는 캐나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며,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우유 생산량은 2010~2012년 평균 165만 톤이며, 수입량은 1만 2천 톤 그리고 수출량은 약 1천 톤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나라 우유 수입은 생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영연방 3국의 동기간 우유 생산량은 1,237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7.5배에 해당하며, 수입량은 4.2만 톤인 것에 비해 수출량은 18만 5톤 수준임.

- 영연방 3국 중 우유 생산량은 뉴질랜드가 약 700만 톤으로 가장 많으며, 수출량도 10만 4천 톤 수준임. 그 다음으로 캐나다의 생산이 282만 6천 톤으로 많으나, 수출량은 호주가 7만 6천 톤으로 더 많음.

- 낙농품별 영연방 3국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면, 우유는 뉴질랜드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주와 캐나다는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치즈, 버터, 분유 등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우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순수입국임. 영연방 3국은 낙농품 생산량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많으며, 특히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수출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생산량의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사용하여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뉴질랜드와 호주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임. 낙농품 부분에서 영연방 3국과의 FTA로 인한 영향은 주로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뉴질랜드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우유보다는 치즈, 버터, 탈지·전지분유 부분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됨.
- 축산물과 낙농품 외의 품목 중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호박과 키위임. 호박과 키위는 영연방 3국 중 주로 뉴질랜드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음.
- 호박은 우리나라산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질랜드산도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위 역시 뉴질랜드산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영연방 3국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전망모형(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ASMO)을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의 파급영향을 분석함.
 - KREI- KASMO은 국내 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으로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취급함.

- 한·영연방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 농산물의 수입증대와 이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액 변화분 계측은 파급효과 분석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울 경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도입함.
 - 수입실적이 없는 영연방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 국가별로 수입수요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 국가의 수입수요함수(평균 탄성치)를 이용하였고, 식물검역 등으로 수입이 규제된 일부 품목은 교차탄성치 가정을 이용하여 영연방 수입량을 계측.
 - 국내산 수요에 대한 수입산 가격의 교차탄성치에 대한 가설적 설정은 수요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수요함수의 성질과 수입산과 국내산의 동질성 정도를 고려함. 즉,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의 상대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국내산 농산물 수요의 변화 정도를 국내산 농산물의 수입품 가격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통해 분석.

- 한·영연방 FTA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KREI-KASMO 2013 모형과 2012년도 통계 활용하여 방정식을 추정한 다음, 호주와 캐나다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뉴질랜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어 농산물 개방 수준이 이행 기간 및 관세감축률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된다고 가정함.

- 우선 파급영향분석을 위해 크게 기준(Baseline)시나리오와 한·영연방 FTA 발효 시나리오(KAFTA)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기준(Baseline) 시나리오는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상의 양허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였고, 한·EU FTA, 한·미 FTA 등 기체결 FTA는 현행 양허기준을 적용하였음.

- 영연방 3국 FTA로 인한 농업분야 총 피해는 연평균 1,65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5년 피해 누계는 2조 4,887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피해가 전체 영연방 3국의 피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의 피해는 전체 피해 중 66.4%를 차지함. 캐나다는 영연방 3국 전체 피해의 19.3%, 뉴질랜드는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피해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업 분야의 피해는 전체 농업 분야 피해의 84.3%를 차지함. 그 중에서 특히 쇠고기 분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쇠고기의 피해는 연평균 758억원이며 이는 전체 축산업 피해의 54.2%를 차지함. 쇠고기 다음으로는 돼지고기가 연평균 365억 원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계 133억 원, 낙농품 122억 원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영연방 3국 FTA의 영향이 큰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를 살펴보면, 가장 영향이 큰 품목은 쇠고기이며,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육계, 낙농, 서류, 두류, 맥류의 순으로 나타났음.
- 쇠고기의 연평균 피해액은 758억 원이며, 쇠고기 피해의 83.1%는 호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돼지고기의 연평균 피해는 36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 피해 중 55.1%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의 영향이며, 호주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간접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육계의 피해는 연간 133억 원이며, 육계는 대부분 영연방 3국으로의 쇠고기 수입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낙농의 피해는 연평균 122억 원이며, 대부분의 피해는 뉴질랜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음.

- 두류와 서류의 피해는 연평균 각각 52억 원 66억 원으로 나타났음. 두류는 호주와 캐나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류는 호주산 감자의 수입으로 나타나는 영향임. 한편, 맥류의 피해는 연평균 39억 원이며, 주로 호주산 수입으로 나타나는 피해임.
- 양파와 마늘은 동계작물인 맥류의 피해로 인한 대체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간접피해가 큰 이유는 양파와 마늘이 우리나라 생산액이 크기 때문임.
- 키위와 호박은 뉴질랜드의 영향이며, 각각 연평균 6억 원,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영연방 3국 FTA 대응 국내대책 방향]

- FTA와 같은 시장개방 확대에 직면한 농업부문의 대응 방향은 실질적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계 전체가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단기 피해보전 대책의 폐업지원제는 과거 한·칠레 FTA 대책 당시 칠레산 복숭아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폐업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함. 현재는 폐업지원금의 대상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과급영향을 분석하여 선별’하도록 되어 있음.
- 다음으로 중장기 대책인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강화 및 활성화 지원정책들은 그 동안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보완 또는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정책수단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유사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제시된 대책들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한·영연방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여파로 영연방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 피해액은 클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한·영연방 FTA의 추진에 따른 축산업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FTA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와 축산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 비중 확대 및 우수브랜드 집중 육성이 필요함.
 - 지속적인 가축개량과 사육시설 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의 수급안정 기반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축사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역별 친환경 축산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축산계열화 활성화로 국내산 축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및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한·영연방 3국 FTA로 국내 농산물이 개방되는 동시에 영연방 3국의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되는 만큼 국내 농업도 수세적인 입장에 벗어나 적극적으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농업인들의 수출조직화,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 등의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도 힘써야 함.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기대효과	5
제2장. 영연방 3국의 경제와 농업 개황	7
1. 호주	9
2. 캐나다	21
3. 뉴질랜드	31
4. 주요 생산품목 비교	40
제3장. 한·영연방 3국 FTA 추진 현황 및 농업부문 파급영향	59
1.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	61
2. 분석모형	72
3. 한·영연방 3국 FTA 파급영향 분석결과	78
제4장 한·영연방 3국 FTA 대응 국내대책 방향	99
1. 농업 분야 국내대응 방향	101
2. 기존 국내보완대책 개선방향	102
3. 축산업부문 대응 방향	103
참고문헌	109

표 차 례

제2장

표 2- 1.	호주의 농업 여건(2013년 기준).....	11
표 2- 2.	호주의 농업생산.....	11
표 2- 3.	호주의 곡물 생산 현황.....	12
표 2- 4.	호주의 기타 작물 생산 현황.....	13
표 2- 5.	호주의 채소 생산 현황.....	13
표 2- 6.	호주의 과일 생산 현황.....	14
표 2- 7.	호주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 현황.....	15
표 2- 8.	호주의 낙농품 생산현황.....	16
표 2- 9.	한국·호주 농축산물 교역현황.....	17
표 2-10.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농산물 수입현황.....	17
표 2-11.	우리나라의 품목별 호주산 농산물 수입현황.....	18
표 2-12.	우리나라의 품목별 호주산 농산물 수출현황.....	20
표 2-13.	캐나다의 농업 여건(2012년 기준).....	22
표 2-14.	캐나다의 농업생산.....	22
표 2-15.	캐나다의 곡물 생산 현황.....	23
표 2-16.	캐나다의 기타 작물 생산 현황.....	23
표 2-17.	캐나다의 채소 생산 현황.....	24
표 2-18.	캐나다의 과일 생산 현황.....	25
표 2-19.	캐나다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 현황.....	26
표 2-20.	캐나다의 낙농품 생산현황.....	27
표 2-21.	한국·캐나다 농축산물 교역현황.....	27
표 2-22.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농산물 수입현황.....	28
표 2-23.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현황.....	29
표 2-24.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농산물 수출현황.....	30
표 2-25.	뉴질랜드의 농업 여건(2013년 기준).....	32
표 2-26.	뉴질랜드의 농업생산.....	32
표 2-27.	뉴질랜드의 곡물 생산 현황.....	33
표 2-28.	뉴질랜드의 채소 생산 현황.....	33
표 2-29.	뉴질랜드의 과일 생산 현황.....	34

표 2-30.	뉴질랜드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 현황	35
표 2-31.	뉴질랜드의 낙농품 생산현황	36
표 2-32.	한국·뉴질랜드 농축산물 교역현황	37
표 2-33.	우리나라의 뉴질랜드산 농산물 수입현황	38
표 2-34.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현황	39
표 2-35.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과의 축산물 생산비교	41
표 2-36.	한국과 영연방 3개국 소 생산비용 비교	42
표 2-37.	한국과 영연방 3개국 돼지 생산비용 비교	43
표 2-38.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지수 비교(RCA)	43
표 2-39.	우리나라의 쇠고기 주요 수입국	45
표 2-40.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	46
표 2-41.	우리나라의 닭고기 주요 수입국	46
표 2-42.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과의 낙농품 생산비교	48
표 2-43.	낙농품의 국제경쟁력 지수 비교(RCA)	50
표 2-44.	우리나라의 우유 주요 수입국	51
표 2-45.	우리나라의 치즈 주요 수입국	52
표 2-46.	우리나라의 버터 주요 수입국	53
표 2-47.	우리나라의 탈지분유 주요 수입국	53
표 2-48.	우리나라의 전지분유 주요 수입국	54
표 2-49.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과의 키위, 호박 생산비교	55
표 2-50.	낙농품의 국제경쟁력 지수 비교(RCA)	55
표 2-51.	우리나라의 호박 주요 수입국	56
표 2-52.	우리나라의 키위 주요 수입국	57

제3장

표 3- 1.	한·호주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63
표 3- 2.	한·호주 FTA 협상타결 품목별 양허안	64
표 3- 3.	한·호주 FTA ASG 품목, 물량, 증량률	65
표 3- 4.	한·캐나다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67
표 3- 5.	캐나다, 호주, 미국 FTA의 주요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68
표 3- 6.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FTA의 주요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71
표 3- 7.	KREI-KASMO 대상품목	74
표 3- 8.	한·호주 FTA 영향분석 시나리오	79
표 3- 9.	한·호주 FTA 타결에 따른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80

표 3-10.	한·호주 FTA로 인한 쇠고기 생산대체, 수입창출 및 수입전환 효과.....	81
표 3-11.	한·호주 FTA 발효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이.....	84
표 3-12.	한·호주 FTA 발효 시 농업부문 수출입 증가액.....	84
표 3-13.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84
표 3-14.	한·캐나다 FTA 영향분석 시나리오.....	86
표 3-15.	한·캐나다 발효시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86
표 3-16.	한·캐나다 FTA 발효 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이.....	89
표 3-17.	한·캐나다 FTA 발효 시 농업부문 수출입 증가액.....	90
표 3-18.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90
표 3-19.	한·뉴질랜드 FTA 영향분석 시나리오.....	91
표 3-20.	한·뉴질랜드 발효시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91
표 3-21.	한·뉴질랜드 FTA 발효 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이.....	93
표 3-22.	한·뉴질랜드 FTA 발효 시 농업부문 수출입 증가액.....	94
표 3-23.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94
표 3-24.	한·영연방 3국 FTA 발효시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96
표 3-25.	한·영연방 3국 FTA 발효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97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 1. 뉴질랜드 원유생산비 중 사료비 비율 49
- 그림 2- 2. 호주의 원유 1리터당 생산 비용 추이 49

제3장

- 그림 3- 1. 낙농품의 연도별·국가별 수입비중 추이 83
- 그림 3- 2. KREI-KASMO 한육우 모형 흐름도 85
- 그림 3- 3. KREI-KASMO 젖소 모형 흐름도 94
- 그림 3- 4. KREI-KASMO 낙농 모형 흐름도 95

부록

- 부도 1. KREI-KASMO 모형의 구조 107
- 부도 2. KREI-KASMO 과수 모형 흐름도 107

▣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13년 12월 5일 한·호주 FTA 타결을 비롯하여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었으며, 2014년 11월에는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음.
- 특히,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는 타결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완료하여 정식서명까지 이뤄졌고, 2014년 12월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임.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들은 축산업과 곡물산업이 발전한 국가들로 한·영연방 3개국 FTA가 발효될 경우 특히 국내 축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교역 비중이 9.4%로 미국,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높으며, 뉴질랜드, 캐나다는 각각 약 1.9%, 1.8%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영연방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량은 198,224톤으로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시장에서 약 66%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영연방 3국은 낙농산업이 발달해 있어 FTA 추진에 따른 유가공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낙농업 및 유가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의 추진은 일부 농산물과 축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FTA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와 축산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영연방 3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에 예상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한·호주 FTA 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간 농산물 교역현황 및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내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우선 영연방 3국의 농업 및 농산물 교역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FTA 양허내용을 활용하여 개별 FTA가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 및 여타 품목의 국내대책 방향을 제시함.
- 영연방 3국의 농업 및 농산물 교역 현황
 - 농업여건과 농산물 생산
 - 농산물 교역 현황
 -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 : 수입 농산물의 품목구조와 FTA 체결 시 수입확대 가능성 검토
- 영연방 3국 FTA의 국내 농업분야 영향분석
 - FTA 타결안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
 - 주요 품목별 생산 감소액 추정
 - 농업부문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계측 및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피해 품목 및 농업부문 대응방향 제시
 -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본 연구의 방법은 영연방 3국의 농업 및 교역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FTA와 관련한 농업분야 생산, 소비, 교역 등의 통계 데이터 분석함. 동시에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분야의 영향분석을 거시계량시뮬레이션 모형(KREI-KASMO)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농업분야 FTA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내용, 현장의견 수렴을 추진함.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의 개최 결과를 원고로 작성하여 이를 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영연방 3국과의 FT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별 요인들에 대응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기대효과

- 농업분야에서는 한국과 영연방 3국의 FTA와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나 유사한 연구로는 2006년 캐나다, 멕시코, 2008년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을 대비한 영향분석 연구 등이 있음.

- 『최세균 외, 농업부문 FTA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6. 4』에서는 캐나다의 농산물 관세체계, 농산물 양허안, 농업부문 파급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대섭 외,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2』에서는 호주·뉴질랜드의 개황 및 농업현황과 파급영향을 분석하였음. 그러나 연구 시기가 2008년이기 때문에 최근의 농업현황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

- 『문한필 외, 한·호주 FTA 주요 농산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8』에서는 호주의 개황 및 농업현황과 파급영향을 분석하였음.

그러나 연구 시기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이고 양허안을 가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근의 거시 및 농업현황, 타결 양허안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대응 방안 작성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대외경쟁력 확보 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FTA 체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내 보완 대책 자료 및 FTA 추가 대책 수립 관련 대국민 홍보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함.

II 제 2 장

영연방 3국의
경제와 농업 개황



제 2 장

영연방 3국의 경제와 농업 개황

1. 호주

1.1. 농업 개황

- 호주¹⁾의 면적은 768만2천km²(한반도의 33배)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인구는 2,272만명에 불과하여 인구밀도가 매우 낮음.
- 호주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 광업, 제조업, 농업 등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 물가안정, 유연한 노동시장, 풍부한 광물자원과 농업기반 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임. 이러한 경제 환경을 기반으로 호주의 광물과 연료, 농산품, 서비스 등이 국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는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호주는 WTO의 전신인 GATT의 초기 가맹국(1948년) 중의 하나이며, 1986년 퀸즈랜드의 케언즈에서 결성된 농업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자유무역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1) 호주는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메니아가 연합된 6개의 주와 준주(準州)인 노던 테리토리, 수도특별구인 캔버라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는 의원내각제이다. 국가원수는 Elizabeth 2세 여왕이나 실제로 연방총독이 호주를 대표한다.

- 호주의 산업은 19세기 광산의 발견과 낙농업의 도입으로 1차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구조였음.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50년대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제조업 보호정책을 실시하였음. 1980년대에는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공산품 수출 확대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정책과 더불어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였음. 2000년대에는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시장 개방 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음²⁾.
- 호주는 열대우림 기후인 북부와 건조한 사막지대인 중서부, 설원의 남부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해안의 아열대와 온대 기후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목초지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음.
- 호주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4,152억 달러에서 2013년 15,32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3%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오고 있음.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21,678달러에서 67,436달러로 약 3배 증가하였음. 반면, 농업 GDP는 같은 기간 전체 GDP의 3.38%에서 2.42%로 감소하였음.
- 호주의 경지면적비중은 53.1%로 국토면적의 절반이상을 경지로 활용하고 있음. 전체 면적의 4,096천km²가 농지로 분류되며, 이 중 85% 이상이 목초지이고, 11% 정도만이 밀과 쌀을 포함한 곡물, 유채, 설탕, 면화 등의 작물재배에 이용되고 있음. 호주의 농경지 면적은 우리나라(17,560km²)에 비하여 무려 25배가 넓으며, 최근 경지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호주의 농가인구는 2013년에 249만 6천명으로 2000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10.9%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영농의 규모화도 진행되고 있음. 대규모의 소수 상업농에 생산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도 다수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호주의 산업구조는 양면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농업의 발달로 1차 산업의 수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구조를 가지는 동시에, 서비스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제조업이 취약한 선진국 구조를 지니는 혼합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대섭 외, 2008, 문한필 외 2011).

표 2-1. 호주의 농업 여건(2013년 기준)

	단위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인구(A)	천명	19,153	20,395	21,249	21,692	22,032	22,340	22,724
농가인구(B)	천명	2,458	2,447	2,455	2,475	2,482	2,485	2,496
농가인구비중(B/A)	%	12.84	12.00	11.56	11.41	11.27	11.13	10.99
국토면적(C)	km ²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7,682,300
경지면적(D)	km ²	4,555,000	4,451,490	4,172,880	4,090,290	3,985,800	4,096,726	4,054,740
경지면적비중(D/C)	%	59.3	57.9	54.3	53.2	51.9	53.3	52.8
GDP	억달러	4,152	6,937	10,555	9,267	11,418	13,869	15,324
1인당GDP	USD	21,678	34,012	49,673	42,722	51,825	62,081	67,436
농업GDP 비중	%	3.4	3.2	2.5	2.5	2.4	2.5	2.4

주: 국토면적, 경지면적 자료는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2. 농산물 생산 현황

- 2012년 호주의 농업 생산액은 427억 호주달러에 달함. 부문별 농업 생산액은 육류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곡물, 원예(과일·채소), 낙농 순서를 보이고 있음.

표 2-2. 호주의 농업생산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농업생산액	15,115	25,406	28,255	29,896	31,983	41,568	42,711

자료: FAO STAT.

- 호주에서 밀, 보리, 귀리, 라이밀은 목초지와 교대로 재배되는 겨울작물이고, 사탕수수, 옥수수, 쌀은 여름작물로 종종 겨울작물과 교대로 재배됨. 이밖에도 호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겨울작물은 카놀라와 콩임.
- 식량작물 중 생산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밀이며 2012년 2,991만 톤이 생산되었음.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은 보리로 2012년 생산량은 822만 톤이 생산되었음. 호주 국내에서 보리는 주로 가축사료로 이용되며, 생산량의 2/3 정도가 사료 또는

맥아상태로 수출되고 있음. 이밖에도 사료작물로 재배되는 수수와 귀리의 생산량이 각각 224만 톤, 126만 톤이며, 쌀, 라이밀, 옥수수, 콩 등의 순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음.

- 호주의 쌀 재배면적은 2000년에 14만 ha까지 확대된 이후 호주대륙의 자연환경 악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때문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2012년 쌀 생산량은 92만 톤에 불과함.

표 2-3. 호주의 곡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밀	22,108	25,173	21,420	21,656	22,138	27,410	29,905
보리	6,743	9,483	7,997	7,909	7,294	7,995	8,221
수수	2,116	2,011	3,790	2,692	1,598	1,935	2,239
귀리	1,050	1,688	1,160	1,180	1,374	1,128	1,262
쌀	1,101	339	18	65	197	723	919
라이밀	841	676	363	545	502	355	285
대두	105	54	35	80	60	30	86
옥수수	45	36	54	52	62	71	71
콩(건조)	58	53	46	51	44	65	50
호밀	20	20	35	34	33	40	40

자료: FAO STAT.

- 열대기후인 퀸즈랜드 북부를 중심으로 매년 3천만 톤 이상의 사탕수수를 생산하고 있는 호주는 브라질과 태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설탕 생산국임. 호주는 매년 450만 톤 이상의 설탕을 생산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사탕수수로 원당과 바이오에탄올을 함께 생산하고 있음. 호주는 식량작물과 사탕수수 이외에도 유지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음.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유지작물은 목화씨(면실)로 2012년에 287만 톤을 생산하였음.

표 2-4. 호주의 기타 작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사탕수수	38,165	37,822	32,621	30,284	31,457	25,182	25,957
목화씨	1,787	1,557	321	795	939	2,154	2,870
루핀	1,055	1,285	708	614	629	808	982
카놀라	6	6	5	5	5	5	6

자료: FAO STAT.

- 1995년부터 10년 동안 호주의 원예 산업은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생산액 기준으로 60%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기상재해로 인해 원예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음.

표 2-5. 호주의 채소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감자	1,200	1,288	1,400	1,179	1,278	1,128	1,288
토마토	414	408	382	440	472	302	372
양파	247	256	254	284	260	331	347
당근/순무	283	316	273	264	267	225	319
상추	152	132	169	165	166	145	115
호박	124	90	114	104	98	103	103
양배추	69	78	72	78	79	80	80
양상치/브로콜리	116	124	64	70	71	67	70
고추	44	47	59	49	50	51	51

자료: FAO STAT.

- 채소류 중에서는 감자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토마토는 감자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음. 감자는 2012년에 129만 톤을 생산하였고 토마토는 37만 톤이 생산되었음.
 - 이밖에도 양파(35만 톤), 당근/순무(32만 톤), 상추(11만 톤), 호박(10만 톤) 등이 생산되었음. 대부분의 채소는 시장접근성이 높은 대도시 근교의 관개지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가뭄에 의한 물 부족이 심한 해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감하기도 함.
- 호주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에

서부터 포도, 오렌지, 감귤,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등 아열대 및 온대과일까지 매우 다양함.

-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과일은 포도로 2012년에 약 166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전체 포도생산의 90%가 포도주 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호주 과일 중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오렌지는 2012년에 39만 톤이 생산되었음.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대부분의 과일 교역에서 북반구의 국가들과 계절성이 두드러지는 교역 패턴을 보이고 있음. 호주와 미국의 오렌지 무역은 호주의 여름철인 10월~2월에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전량이 수출되는 반면, 호주의 겨울철에는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고 있음.
- 이밖에도 사과와 바나나가 각각 28만 톤, 수박이 14만 톤 수준으로 생산되었으며, 배, 복숭아, 파인애플, 감귤류, 멜론 등이 8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음. 오렌지와 마찬가지로 사과, 배, 포도, 열대과일 등도 북반구와 정반대인 계절적인 특성 아래 아시아와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음. 다만, 이들 신선 과일은 검역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있음.

표 2-6. 호주의 과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포도	1,311	2,027	1,957	1,797	1,684	1,716	1,657
오렌지	510	498	409	348	391	291	390
사과	320	327	265	295	264	300	289
바나나	257	266	207	270	302	203	286
수박	85	108	152	131	132	136	140
배	156	151	130	120	95	123	119
복숭아	112	130	128	117	114	98	100
파인애플	139	104	162	158	125	83	90
감귤류	85	88	94	90	91	98	85
멜론	87	83	67	76	76	76	80
망고/구아바/망고스틴	38	50	49	41	44	37	45
딸기	15	24	25	28	29	31	31
레몬,라임	32	29	36	30	29	30	30
자두	24	33	22	16	16	16	16
살구	20	20	17	14	13	13	13
체리	6	8	10	14	13	10	12
자몽	13	20	11	11	10	9	10

자료: FAO STAT.

- 호주는 광범위한 초지를 바탕으로 쇠고기 생산에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소 사육두수는 2012년 2,842만 두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2년에 229만 톤이며, 이중 절반 가량을 수출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의 위치에 있음.
- 양 사육두수는 2000년 약 1억 2천만 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7,472만 두를 기록하였음. 양고기의 생산도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 양고기는 61만 톤을 생산하였음.
- 호주에서 돼지는 집약적으로 사육되고 있음. 호주의 양돈 산업은 규모화 되어 있고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은 편임.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35만 톤임.
- 호주의 닭 사육두수는 2012년에 1억만 수이며, 닭고기 생산량은 104만 톤으로 2000년 대비 1.7배 정도 증가하였음.

표 2-7. 호주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두,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사육두수	27,588	28,183	27,321	27,907	26,733	28,506	28,418
	생산량	2,193	2,302	2,346	2,362	2,333	2,274	2,293
양	사육두수	118,552	101,125	79,938	72,740	68,085	73,099	74,722
	생산량	791	682	748	709	619	564	607
돼지	사육두수	2,511	2,708	2,411	2,302	2,289	2,285	2,138
	생산량	365	391	360	321	336	343	350
닭	사육마리수	84,928	75,903	88,629	95,409	83,024	90,744	100,996
	생산량	614	760	804	834	883	1,018	1,040
오리	사육마리수	517	900	1,200	1,473	1,200	1,000	1,100
	생산량	8	10	15	18	17	16	16
천연꿀		21	15	18	17	16	10	11
계란		143	139	160	159	174	205	215

자료: FAO STAT.

- 호주는 낙농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료의 75%가 목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원유생산이 가능하여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호주는 EU,와 뉴질랜드와 함께 낙농품 수출 강국임.
- 2001년 이후 자연조건의 악화와 우유 산업의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 때문에 우유 생산이 감소하였음. 또한, 2006~2007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목초지가 감소하였으며 사료작물의 공급이 제한되어 우유 생산량이 하락하였음.
- 2012년 우유 생산량은 251만 톤이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등의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표 2-8. 호주의 낙농품 생산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우유	3,768	3,156	2,633	3,053	2,625	2,511	2,511
치즈	373	388	361	342	349	339	340
버터	183	148	128	148	128	122	120
탈지분유	247	206	166	170	168	168	168
전지분유	187	189	142	145	126	135	135
유장	54	95	95	95	95	100	98
연유	25	19	20	19	20	10	10
버터밀크(건조)	18	17	13	14	14	14	14

자료: FAO STAT.

1.3. 대 호주 농산물 교역 현황

- 우리나라와 호주간의 농축산물 교역은 우리나라의 수입 위주임. 우리나라의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은 2005년 12억 7,400만 달러에서 2013년 21억 7,60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수출은 수입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나,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3년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동기간 수입 수출 모두 2005년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 2013년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억 7,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표 2-9. 한국·호주 농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A)	1,274	1,577	1,722	1,505	1,998	2,540	2,630	2,176
수출(B)	44	71	74	82	79	87	97	101
무역수지(B-A)	-1,230	-1,506	-1,648	-1,423	-1,919	-2,453	-2,533	-2,075

주: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의 전체 농업 수입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은 2000년 69억 달러에서 2013년 231억 400만 달러로 급성장하였음.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은 미국, EU, 호주,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임.
 - 호주의 수입은 2000년 7억 500만 달러에서 2013년 24억 4,900만 달러로 성장하여, 중국과 EU에 비하여 수입 증가 속도가 빠른 편임.

표 2-10.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농산물수입	6,902	10,068	14,166	17,034	22,686	22,588	23,104	22,794	100.0
호주	705	1,274	1,505	1,998	2,540	2,630	2,176	2,449	10.7
미국	2,237	2,007	3,939	5,222	6,538	5,709	5,067	5,772	25.3
중국	1,242	1,998	1,819	2,127	2,598	2,493	2,935	2,676	11.7
EU	858	1,321	1,403	1,663	2,358	2,278	2,557	2,399	10.5
브라질	194	572	1,155	988	1,068	1,661	2,419	1,716	7.5
아르헨티나	63	267	358	450	520	914	1,074	836	3.7

주: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가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쇠고기, 사탕수수당, 밀 등임. 특히 쇠고기는 호주 수입의 32.1%를 차지하고 있음.
 - 쇠고기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품목은 밀임(26.3%). 그러나 밀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밀은 일부 사료용이 수입되고 있으나 주로 제분용 밀이 수입되고 있음.

- 낙농품, 보리, 옥수수, 면양고기, 감자, 오렌지 등은 호주산 농산물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들임.
 - 낙농품 중에서는 치즈의 수입이 가장 많으며, 탈지분유와 조제분유의 수입도 많은 편임. 그러나 치즈와 조제분유의 수입은 2010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임.
 - 보리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맥주맥과 맥아(볶지 않은 것)를 수입하고 있음.
 - 양고기, 감자, 오렌지 등의 수입은 호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11. 우리나라의 품목별 호주산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총수입액	704.7	1,274.2	1,505.2	1,997.8	2,539.8	2,629.7	2,176.2	2,448.6	100.0
쇠고기	95.4	377.4	480.6	633.9	849.3	753.2	836.0	812.8	33.2
밀	177.7	196.7	222.5	253.9	634.2	699.2	371.6	666.7	27.2
사탕수수당	178.6	245.1	412.1	639.0	481.1	522.6	375.8	459.8	18.8
면	71.3	84.9	31.6	47.4	115.7	114.3	131.2	120.4	4.9
낙농품	7.8	30.8	69.8	82.6	105.4	83.4	75.3	88.0	3.6
- 치즈	2.1	3.2	24.5	34.8	33.3	33.3	26.8	31.1	1.3
- 탈지분유	2.0	8.8	17.8	14.3	26.8	20.0	22.2	23.0	0.9
- 조제분유	-	1.9	8.7	15.7	12.0	11.3	10.9	11.4	0.5
- 버터	0.3	7.7	6.3	5.8	10.3	6.8	3.3	6.8	0.3
- 생우유	2.7	4.4	6.8	5.3	8.9	5.2	6.0	6.7	0.3
- 전지분유	0.5	3.7	2.8	3.4	9.5	2.5	2.7	4.9	0.2
보리	21.0	39.2	56.9	54.4	95.3	100.4	88.0	94.6	3.9
루핀종자	47.5	39.2	49.6	67.8	27.1	95.9	28.9	50.6	2.1
사료용근채류	0.9	12.2	25.1	32.9	41.3	50.4	56.7	49.5	2.0
유채유	-	0.8	25.5	35.1	37.3	32.5	32.5	34.1	1.4
기타축산조제품	0.0	0.0	13.6	22.0	33.8	17.8	11.9	21.2	0.9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혼합조제식료품	4.6	4.9	14.5	18.0	25.5	26.1	21.2	24.3	1.0
면실	14.1	7.6	4.5	12.5	21.3	32.3	41.4	31.7	1.3
옥수수	1.1	1.3	13.3	11.7	22.1	29.1	28.2	26.5	1.1
면양고기	3.5	6.6	9.6	14.5	19.4	21.1	20.4	20.3	0.8
감자	3.6	6.5	2.0	5.2	9.7	9.8	8.5	9.3	0.4
포도주	1.2	5.1	7.9	7.0	7.8	8.3	7.3	7.8	0.3
오렌지	1.4	2.4	0.5	0.7	1.6	3.2	1.7	2.2	0.1

주: 총수입액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이며,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농림축산물 품목분류 코드)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가 호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라면과 커피조제품, 비스킷, 곡류조제품 등임. 그러나 이들 품목을 제외하고는 소량 다품목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라면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대 호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임.
 - 커피조제품은 라면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대폭 감소하였음.
- 가공농산물 중 농가소득과 비교적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발효유, 김치, 탁주, 유자(차), 백삼조제품 등의 수출도 증가 추세임.
-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가공농산물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신선농산물은 쌀, 기타채소, 새송이 버섯, 고추, 기타버섯 등이 주요 수출품임.
 - 쌀은 2000년 후반부터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 호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임. 쌀은 주로 멍쌀의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음.
 - 새송이 버섯은 2009년부터 수출이 통계에 등록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수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고추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12. 우리나라의 품목별 호주산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0-'12)	
농축산물	20.9	44.1	82.2	79.0	86.6	96.8	101.0	94.8	100.0
라면	4.2	7.1	8.1	10.0	10.6	11.4	11.3	11.1	11.7
커피조제품	0.8	7.5	26.2	8.9	11.3	8.9	7.5	9.2	9.7
비스킷	1.0	2.5	4.5	4.6	5.6	5.1	3.4	4.7	5.0
곡류조제품	0.9	0.8	1.8	6.9	4.5	2.2	2.3	3.0	3.2
기타음료	0.1	1.1	2.5	2.5	3.7	4.0	4.7	4.1	4.3
기타베이커리제품	0.2	1.6	3.6	2.1	2.5	3.8	5.4	3.9	4.1
쌀	-	-	3.8	2.9	2.6	2.1	1.5	2.1	2.2
기타파스타	1.2	2.0	2.1	3.1	2.4	1.8	2.2	2.1	2.2
혼합조제식료품	5.3	5.4	1.6	1.5	2.3	3.5	4.3	3.4	3.6
발효유	0.1	1.7	2.2	1.6	1.7	2.2	2.5	2.1	2.2
퀵런	0.4	0.3	1.1	1.2	1.1	3.1	5.2	3.1	3.3
맥주	0.0	0.1	0.2	0.7	1.1	2.9	3.0	2.3	2.4
채소종자	-	0.1	0.1	0.9	1.1	2.3	0.4	1.3	1.4
국수	0.3	1.0	1.0	1.2	1.9	1.2	1.2	1.4	1.5
김치	-	-	0.7	1.1	1.2	1.5	1.7	1.5	1.6
소주	0.1	0.3	1.0	1.4	1.1	1.0	1.4	1.2	1.3
기타채소	0.1	0.1	0.3	0.7	1.0	1.6	0.7	1.1	1.2
새송이버섯	-	-	0.5	0.9	0.6	1.1	1.4	1.0	1.1
고추	0.1	0.0	0.3	0.5	0.6	0.7	0.6	0.6	0.6
기타버섯	-	0.0	0.1	0.1	0.5	0.2	0.2	0.3	0.3
탁주	0.0	0.0	0.0	0.1	0.3	0.3	0.3	0.3	0.3
유자	-	-	0.1	0.2	0.2	0.2	0.1	0.2	0.2
백삼조제품	0.1	0.1	0.1	0.2	0.1	0.3	0.2	0.2	0.2

주: 총수입액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이며,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농림축산물 품목분류 코드)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2. 캐나다

2.1. 농업 개황

- 캐나다의 국토면적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 2위인 909만km²로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으며, 10개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음. 국토의 대부분이 툰드라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80%는 남부지역인 미국 국경선으로부터 200km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캐나다의 인구는 3,475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70%수준에 불과하며 국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그러나 1인당 GDP는 5만 2,409달러로 경제대국에 해당됨.
- 캐나다의 경지면적은 62만 3,460km²로 국토면적의 7.2%에 불과하며 최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전체 농경지 면적의 3/4이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앨버타(Alberta), 매니토바(Manitoba) 3개 주에 집중되어 있음. 이 지역은 중앙 대평원 지역으로 곡류와 유지 종자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 캐나다는 국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후, 토양, 지세가 달라 농업의 지역적 특색이 강함.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R&D)투자로 인한 기술혁신은 농업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켰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전문화·규모화된 대형 가족농장 형태를 이루고 있음. 대표적인 작물은 밀(wheat)로 세계 1~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계 3 위임. 곡물과 채유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축산업은 농업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 캐나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7,249억 달러에서 2013년 18,21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23,560달러에서 52,409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음. 반면, 농업 GDP는 2011년 전체 GDP의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캐나다의 농가인구는 2000년에 631만 명에서 2013년 6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농가인구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임.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농지규모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평균 규모는 약 500에 이커로 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임.

표 2-13. 캐나다의 농업 여건(2012년 기준)

	단위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인구(A)	천명	30,770	32,312	33,246	33,629	34,005	34,343	34,754
농가인구(B)	천명	6,315	6,423	6,457	6,471	6,482	6,486	6,501
농가인구비중(B/A)	%	20.5	19.9	19.4	19.2	19.1	18.9	18.7
국토면적(C)	km ²	9,088,510	9,088,510	9,088,510	9,088,510	9,088,510	9,088,510	9,088,510
경지면적(D)	km ²	676,130	675,690	646,108	639,402	632,686	625,970	653,460
경지면적비중(D/C)	%	7.4	7.4	7.1	7.0	7.0	6.9	7.2
GDP	억달러	7,395	11,642	15,426	13,708	16,141	17,786	18,214
1인당GDP	USD	24,032	36,029	46,399	40,764	47,465	51,791	52,409
농업GDP 비중	%	-	-	1.8	1.6	1.5	-	-

주: 국토면적, 경지면적 자료는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2.2. 농산물 생산 현황

- 2012년 캐나다의 농업 생산액은 374억 달러에 달함. 부문별 농업 생산액은 육류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낙농, 곡물, 원예(과일·채소)순서를 보이고 있음.

표 2-14. 캐나다의 농업생산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농업생산액	11,677	15,266	21,877	25,760	26,135	32,382	37,370

자료: FAO STAT.

- 식량작물 중 생산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밀이며 2012년 2,526만 톤이 생산되었음. 밀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곡물로 생산량의 75%를 수출하고 있으며 위니펙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음.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은 보리로 2012년 생산량은 775만 톤이 생산되었음. 이밖에도 대두와 귀리의 생산량이 각각 424만 톤, 299만 톤이며, 호밀, 옥수수, 콩, 라이밀 등의 순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음.

- 보리는 매니토바주에서 재배되며, 호밀은 프레리, 귀리는 태평양 연안과 세인트 로렌스 저지에서 재배되고 있음. 캐나다의 주요 곡물인 밀, 보리, 옥수수, 귀리 등은 세계시장 공급량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가축사료로 사용되고 있음.

표 2-15. 캐나다의 곡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밀	26,536	24,796	20,054	28,611	26,848	23,167	25,261
보리	13,229	12,557	10,984	11,781	9,517	7,605	7,756
대두	2,703	3,044	2,696	3,336	3,507	4,345	4,246
귀리	3,403	3,467	4,696	4,273	2,906	2,480	2,997
호밀	260	398	252	316	281	232	195
콩(건조)	261	218	277	266	224	254	145
옥수수	259	287	296	217	232	218	214
라이밀	90	80	47	38	30	66	32

자료: FAO STAT.

- 캐나다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생산량의 1/3 가량을 곡류와 유지작물이 차지하고 있음.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유지작물은 평지씨로 2012년에 1,416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농업생산액 상위 1위 품목임. 캐나다에서 개발된 카놀라유는 평지씨에서 얻은 것으로 샐러드, 쿠킹 오일, 마아가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표 2-16. 캐나다의 기타 작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평지씨	7,205	7,674	9,601	12,643	12,889	12,773	14,165
완두콩(건조)	2,864	3,097	2,935	3,571	3,379	3,018	2,116
렌즈콩	914	916	734	1,043	1,510	1,947	1,532
사탕무	821	744	762	345	658	560	775
아마인	693	517	634	861	930	423	368
카나리씨	171	301	162	196	196	154	102

자료: FAO STAT.

- 캐나다는 기후조건으로 인해 과일, 채소류와 같은 원예작물 생산이 저조한 편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음. 기술개발로 인해 시설원예 작물인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의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소폭 감소한 추세임.
- 채소류 중에서는 감자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토마토 생산량이 많음. 감자는 2012년에 416만 톤을 생산하였고 토마토는 47만 톤이 생산되었음. 이밖에도 당근/순무(42만 톤), 양파(20만 톤), 양배추(20만 톤) 등이 생산되었음.

표 2-17. 캐나다의 채소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감자	4,567	5,235	4,999	4,724	4,581	4,422	4,168
토마토	701	817	822	770	502	493	472
당근/순무	261	294	307	277	359	414	421
양파	189	190	220	203	238	199	204
양배추	165	198	174	176	189	196	203
호박	36	60	65	69	81	78	90
상치	63	77	78	70	108	80	63
고추	48	37	43	42	43	47	46
양상치/브로콜리	39	43	26	37	41	32	29

자료: FAO STAT.

-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사과, 복숭아, 자두, 체리 등으로 온타리오주의 나이아가라반도와 로키산맥의 오카노간 분지에서 주로 재배·생산되고 있음.
 -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일은 사과로 2012년에 약 39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최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였음. 온타리오주와 노바스코샤주는 사과가 특산물임.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블루베리는 2012년에 10만 톤이 생산되었음. 이밖에도 포도와 크렌베리, 복숭아, 딸기, 수박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1만 톤 미만으로 적은 편임.

표 2-18. 캐나다의 과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사과	543	381	405	427	435	371	395
블루베리	59	82	77	96	103	84	105
포도	64	78	72	81	68	76	91
크렌베리	32	67	66	73	87	75	86
복숭아	33	30	34	29	26	26	26
딸기	24	25	24	20	20	19	20
수박	2	4	10	10	15	19	18
멜론	9	12	10	12	13	12	11
체리	4	8	9	7	15	10	10
배	16	14	13	10	8	8	8
자두	3	3	3	2	3	3	3
살구	1	1	1	1	1	1	0

자료: FAO STAT.

- 캐나다 농업 수입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축산물임. 대부분의 농가에서 양돈과 육우 사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캐나다는 광활한 농지에서 생산되는 사료용 곡물과 넓은 목초지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유지하고 있음.
- 소 사육두수는 2012년 1,221만 두로 2000년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며 쇠고기 생산량은 2012년에 100만 톤임. 앨버타주의 서부 로키산맥 동쪽 기슭의 초원지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몬트리올과 토론토 등의 동부 소비지로 출하되고 있음. 또한 많은 수의 생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 돼지고기 생산액은 2012년 상위 2위 품목임. 지방이 적고 육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254만 톤으로 캐나다 육류 생산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캐나다 닭 사육두수는 2012년에 1억 6천만 수이며, 닭고기 생산량은 104만 톤임. 캐나다의 주요 축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천연꿀은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많은

편이나, 닭고기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표 2-19. 캐나다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두,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사육두수	13,201	14,925	13,895	13,180	13,013	12,155	12,305
	생산량	1,461	1,679	1,551	1,507	1,532	1,390	999
양	사육두수	793	978	850	844	855	879	887
	생산량	14	18	15	16	15	15	16
돼지	사육두수	12,904	14,810	12,700	12,465	12,690	12,785	12,668
	생산량	2,002	2,626	2,786	2,511	2,447	2,508	2,542
닭	사육마리수	158,000	160,000	165,000	165,000	165,000	164,600	166,000
	생산량	900	998	1,013	1,009	1,021	1,033	1,042
오리	사육마리수	1,15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생산량	7	9	8	8	8	8	8
천연꿀		32	36	29	32	34	36	29
계란		372	399	419	422	433	437	443

자료: FAO STAT.

- 축산물 다음으로 캐나다 농업수입이 높은 품목이 낙농임. 캐나다 낙농가의 81.2%가 세인트로렌스강 유역의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되어있으며 주로 미국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음.
- 소규모 농가의 탈농이 지속되어 낙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젖소 사육두수 또한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반면, 우유생산량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젖소의 두당 산유량 증가추세가 사육두수 감소추세보다 높기 때문임.
 - 2012년 우유 생산량은 282만 톤이며, 치즈, 버터, 탈지분유, 연유, 유장 등의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표 2-20. 캐나다의 낙농품 생산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우유	2,476	2,753	2,828	2,826	2,826	2,826	2,826
치즈	360	379	396	408	418	409	425
버터	83	86	86	86	80	87	98
탈지분유	75	73	90	83	82	76	76
전지분유	4	1	1	1	1	1	1
유장	59	24	27	24	22	23	23
연유	79	50	49	49	49	49	49
버터밀크(건조)	4	3	2	2	3	2	2

자료: FAO STAT.

2.3. 대 캐나다 농산물 교역 현황

- 우리나라와 캐나다간의 농축산물 교역은 우리나라의 수입 위주임.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은 2006년 3억 3,700만 달러에서 2013년 4억 2,09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수출은 수입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나,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동기간 수입은 2006년에 비하여 약 1.2배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2.1배 증가하였음. 2013년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3억 5,0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2011년 수입이 급증한 것은 밀과 유채유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임.

표 2-21. 한국·캐나다 농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A)	337.0	341.3	422.1	325.1	468.3	1,028.3	549.3	420.9
수출(B)	33.3	35.2	37.8	41.0	47.1	56.8	65.3	70.4
무역수지(B-A)	-303.6	-306.1	-384.3	-284.1	-421.2	-971.5	-484.0	-350.4

주: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의 전체 농업 수입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은 2000년 69억 20만 달러에서 2013년 231억 1,040만 달러 급성장하였음.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은 미국, 중국, EU, ASEAN, 호주, 브라질 등임.
 - 캐나다의 수입은 2000년 2억 10만 달러에서 2013년 4억 2,100만 달러로 성장하여, 동기간 약 2.1배 증가하였음.

표 2-22.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농산물수입	6,902	10,068	14,166	17,034	22,686	22,593	23,104	22,794	100.0%
캐나다	201	405	325	468	1,028	549	421	666	2.9%
미국	2,237	2,007	3,939	5,222	6,538	5,709	5,067	5,772	25.3%
중국	1,242	1,998	1,819	2,127	2,598	2,495	2,935	2,676	11.7%
EU	858	1,321	1,403	1,665	2,358	2,280	2,557	2,399	10.5%
ASEAN	569	866	1,443	1,715	2,687	2,833	2,780	2,767	12.1%
호주	705	1,274	1,505	1,998	2,540	2,630	2,176	2,449	10.7%
브라질	194	572	1,155	988	1,068	1,661	2,419	1,716	7.5%

주: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밀, 돼지고기, 유채유 등임. 특히 밀과 돼지고기는 각각 캐나다 수입의 35.0%, 22.2%를 차지하고 있음.
 - 밀은 일부 제분용이 수입되고 있으나 주로 사료용 밀이 수입되고 있음. 돼지고기는 신선,냉장 삼겹살도 수입이 되고 있으나 주로 냉동/기타 부위가 수입되고 있음.
 - 이들 품목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품목은 유채유임(11.2%). 그러나 유채유는 우리나라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낙농품, 보리, 대두, 쇠고기 등은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임.
 - 낙농품은 주로 유장이 수입되고 있음.
 - 보리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맥아(볶지 않은 것)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정하지는 않지만 겔보리도 수입이 되고 있음.

- 대두는 사료용이 아닌 콩나물용과 대두 기타가 수입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 대두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23.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총수입액	200.9	405.1	325.1	468.3	1,028.3	549.3	420.9	666.1	100.0%
밀	39.9	197.2	62.6	186.5	492.7	123.3	83.9	233.3	35.0%
돼지고기	23.7	84.5	102.7	101.5	223.6	141.2	79.8	148.2	22.2%
유채유	3.2	13.2	26.8	32.3	105.6	77.6	40.9	74.7	11.2%
혼합조제식료품	0.8	9.9	10.5	15.9	28.1	26.1	26.6	26.9	4.0%
낙농품	8.9	14.1	17.6	21.0	26.3	20.6	21.3	22.7	3.4%
보리	6.1	12.1	9.5	10.8	16.0	27.2	19.0	20.8	3.1%
유채	0.4	0.2	-	0.0	-	7.8	36.4	14.7	2.2%
대두	0.3	0.4	0.0	2.3	9.6	7.9	18.4	12.0	1.8%
우지	2.5	19.2	26.5	24.0	20.1	5.5	2.8	9.5	1.4%
기타동물성유지	-	-	-	-	-	18.3	6.2	8.2	1.2%
기타과실	0.1	1.4	1.1	2.6	7.3	7.9	6.8	7.3	1.1%
사료용근채류	5.9	10.8	2.4	0.1	4.3	10.0	7.1	7.1	1.1%
돼지	0.7	0.6	0.2	2.2	12.9	7.4	1.0	7.1	1.1%
쇠고기	67.2	0.1	-	0.0	0.0	6.6	10.9	5.8	0.9%
쇼트닝	0.4	1.7	8.5	10.3	15.9	0.0	-	5.3	0.8%
호밀	0.5	2.2	5.8	2.9	3.9	6.2	5.3	5.1	0.8%
단풍당	0.1	0.3	1.8	2.9	4.8	5.6	4.1	4.8	0.7%

주: 총수입액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이며,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농림축산물 품목분류 코드)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음료,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임. 캐나다로의 농산물 수출은 소량 다품목인 것이 특징임.
 -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은 2012년 이후로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임.
 - 라면은 혼합조제식료품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가공농산물 중 농가소득과 비교적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김치, 고추장 등이며, 수출은 증가 추세임.
-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가공농산물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지만 배를 제외하고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신선농산물은 새송이버섯, 감, 홍삼, 팽이버섯, 배 등이 주요 수출품임.
 - 새송이버섯은 2009년부터 수출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감, 김치, 홍삼, 팽이버섯도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임.
 - 배는 2011년 110만 달러 가량 수출하였으나 2013년에는 80만 달러로 수출이 감소하였음.

표 2-24.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농축산물	29.1	34.0	41.0	47.1	56.8	65.3	70.4	64.2	100.0%
혼합조제식료품	2.9	4.2	1.6	1.3	1.5	7.4	8.2	5.7	8.9%
라면	6.6	8.1	3.8	4.2	4.6	4.9	6.0	5.2	8.1%
기타음료	0.0	0.6	1.9	2.4	3.4	4.3	3.7	3.8	5.9%
비스킷	0.7	1.1	1.7	2.9	3.0	2.5	2.6	2.7	4.2%
아이스크림	0.0	0.1	0.5	0.9	1.5	2.6	2.6	2.3	3.5%
인스턴트면	0.2	0.2	0.2	0.2	0.8	2.8	2.7	2.1	3.3%
기타파스타	0.5	1.0	1.8	2.3	2.4	1.5	1.8	1.9	3.0%
곡류조제품	0.8	1.7	1.6	1.9	2.0	1.8	1.7	1.9	2.9%
새송이버섯	-	-	0.4	0.8	1.1	1.8	2.2	1.7	2.7%
국수	0.2	1.0	1.5	2.2	2.2	1.4	1.4	1.7	2.6%
기타베이커리제품	0.7	0.3	0.9	0.8	1.1	1.5	2.0	1.5	2.4%
감	-	0.1	1.6	1.0	1.3	1.9	1.2	1.5	2.3%
김치	-	0.3	0.5	0.7	1.1	1.3	1.3	1.2	1.9%
홍삼	0.2	0.1	0.2	0.3	0.8	1.1	1.8	1.2	1.9%
기타식물성접질물	0.1	1.4	1.3	1.3	2.1	1.1	0.4	1.2	1.8%
팽이버섯	0.0	0.0	0.5	0.9	1.0	1.2	1.3	1.2	1.8%
고추장	0.2	0.5	0.6	0.7	0.7	1.1	1.4	1.1	1.6%
기타소오스제품	0.0	0.0	0.3	0.5	0.7	1.0	1.3	1.0	1.5%
배	1.4	1.2	1.0	1.2	1.1	0.7	0.8	0.9	1.3%

주: 총수입액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이며,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농림축산물 품목분류 코드)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3. 뉴질랜드

3.1. 농업 개황

-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국토는 북섬과 남섬 그리고 부속 섬으로 구성됨. 뉴질랜드의 국토면적은 26만km²이며 이 중 경지면적은 11만km²로 전체 면적의 42.8%에 달함. 북섬은 산지와 구릉이 많으며 특히 화산이 많아 경작에는 적합하지 않아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목초가 잘 자라 방목을 하고 있음. 남섬에는 광대한 캔터베리 평원과 오타고 고원이 있어 밀, 귀리, 근채류 등을 경작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인구는 443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9% 수준에 불과함. 농가인구는 2013년 6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농가인구의 비중이 높은 편임.
- 뉴질랜드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520억 달러에서 2013년 1,71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도 동기간 1만 3,483달러에서 3만 8,678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뉴질랜드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12% 수준이나,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으로 빈부격차가 적은 부유한 국가임.
- 뉴질랜드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7.2% 수준으로 우리나라 보다 높은 편임. 뉴질랜드는 낙농업과 목축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이며, 양모와 버터 그리고 쇠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 생산이 세계적인 수준임. 특히 뉴질랜드의 새끼 양고기(캔터베리램)은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임. 최근에는 와인 생산지로 각광받고 있음.

표 2-25. 뉴질랜드의 농업 여건(2013년 기준)

	단위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인구(A)	천명	3,858	4,134	4,269	4,316	4,368	4,405	4,433
농가인구(B)	천명	553	577	592	598	604	609	612
농가인구비중(B/A)	%	14.32	13.95	13.87	13.85	13.84	13.82	13.80
국토면적(C)	km ²	253,310	253,310	253,310	253,310	253,310	253,310	253,310
경지면적(D)	km ²	154,130	117,120	113,740	114,900	114,080	113,710	112,808
경지면적비중(D/C)	%	58.5	44.5	43.2	43.6	43.3	43.2	42.8
GDP	억달러	520	1,138	1,305	1,190	1,435	1,638	1,715
1인당GDP	USD	13,483	27,526	30,560	27,562	32,846	37,193	38,678
농업GDP 비중	%	8.4	4.9	5.5	6.3	7.2	-	-

주: 국토면적, 경지면적 자료는 2012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3.2. 농산물 생산 현황

- 2012년 뉴질랜드 농업 생산액은 160억 달러임. 부문별 농업 생산액은 낙농품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축산물, 과일류, 곡물류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표 2-26. 뉴질랜드의 농업생산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농업생산액	4,419	8,646	9,092	9,401	11,839	16,314	16,004

자료: FAO STAT.

- 식량작물 중 뉴질랜드에서 생산이 가장 많은 품목은 감자이며, 감자는 연간 50만 톤 이상 꾸준히 생산해 오고 있음. 2012년 감자 생산량은 55만 톤 임. 그 다음으로 생산이 많은 식량작물은 밀이며, 2012년에는 48만 9천 톤이 생산이 되었음. 곡물 중에는 밀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나, 밀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호주에서 수입을 하여 충당하고 있음. 밀 다음으로 생산이 많이 되는 곡물은 보리이며, 2012년 생산량은 43만 9천 톤임. 그 외에는 옥수수 생산이 많은 편이며, 콩, 귀리, 고구마 등도 일부 생산하고 있음.

- 식량작물은 주로 내수용으로 생산되고 있음.

표 2-27. 뉴질랜드의 곡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감자	500	500	505	545	525	530	550
밀	326	319	343	403	445	383	489
보리	302	302	409	435	308	368	439
옥수수	181	210	206	238	189	210	211
옥수수(신선)	101	97	85	90	91	61	80
완두콩(신선)	60	63	47	43	43	38	38
완두콩(건조)	64	38	20	21	37	32	20
귀리	35	25	25	34	48	28	18
고구마	18	18	13	12	13	14	16
기타곡물	10	12	16	14	12	10	12
콩(신선)	8	5	5	5	6	6	8

자료: FAO STAT.

-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주요 채소는 양파, 호박, 토마토, 당근 등이 있으며, 가장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양파임. 양파의 2012년 생산량은 25만 7천 톤이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호박의 생산이 많으며 2012년 호박 생산량은 15만 3천 톤임. 호박 역시 주요 수출 농산물이며, 우리나라도 뉴질랜드로부터 호박을 수입하고 있음.
- 그 외에 신선채소(기타), 토마토, 당근/순무, 양배추/유채/겨자, 꽃양배추/브로콜리, 상추/치커리 등의 채소가 주요 생산 품목이며, 송로버섯, 고추(신선), 파, 아스파라거스 등도 일부 생산하고 있음.

표 2-28. 뉴질랜드의 채소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양파	240	165	200	203	210	228	257
호박	155	124	175	160	161	148	153
신선채소(기타)	114	150	143	153	154	135	140
토마토	87	90	90	92	75	63	95
당근/순무	77	65	67	65	68	60	88
양배추/유채/겨자	36	40	39	42	43	37	43
꽃양배추/브로콜리	56	56	41	42	42	37	39
상추/치커리	37	27	33	32	32	28	34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송로버섯	9	9	9	9	8	10	10
고추(신선)	5	6	6	6	6	5	6
파	3	3	3	3	3	3	3
아스파라거스	5	5	2	2	2	2	3
시금치	2	2	2	3	3	2	2
마늘	2	1	2	2	2	1	2

자료: FAO STAT.

- 뉴질랜드가 생산하는 주요 과일은 사과, 키위, 포도이며, 사과와 키위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포도는 와인 양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사과 생산량은 2012년 44만 8천톤이며, 키위 생산은 37만 6천 톤임. 포도 생산은 2000년 8만 톤 수준이었으나, 최근 뉴질랜드 와인이 전 세계에서 각광 받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는 포도 생산이 34만 톤으로 급증하였음.
- 배, 아보카도, 오렌지, 감귤류, 복숭아 등도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지는 않음. 그러나 딸기, 레몬, 라임, 멜론, 살구, 블루베리, 감 등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2-29. 뉴질랜드의 과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사과	620	524	446	431	450	445	448
키위	262	318	382	386	434	420	376
포도	80	142	285	285	266	328	340
배	42	32	33	32	30	27	30
아보카도	13	23	17	21	20	19	21
신선과일(기타)	18	21	21	21	20	19	21
오렌지	5	7	9	9	9	9	10
감귤류	10	9	9	9	8	8	8
복숭아	17	9	8	8	8	8	8
건포도	3	8	8	8	8	7	8
탄저린/만다린류	5	7	7	8	8	8	7
딸기	7	5	5	6	6	6	7
레몬,라임	3	5	6	5	5	5	5
멜론	1	1	3	4	4	4	4
살구	7	4	3	3	3	3	3
블루베리	2	2	2	3	3	3	3
감	1	3	3	3	3	2	2
자두	2	2	2	2	2	2	2
수박	3	2	3	3	2	2	2
체리	0	2	2	2	3	2	2
모과	1	1	1	1	1	1	1

자료: FAO STAT.

- 뉴질랜드의 주요 생산 농산물은 축산물임. 축산물 중 쇠고기, 양고기가 주요 생산 품목이며, 특히 양고기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나며, 생산량은 적으나 사슴고기도 유명함.
- 쇠고기 생산량은 2012년 60만 7천 톤이며, 양고기 생산량은 44만 7천 톤임. 닭고기는 2012년 17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돼지고기와 오리고기의 생산량은 각각 5만 톤, 1만 톤으로 주력 생산 품목은 아님.
- 양의 사육두수는 2012년 3,126만 마리 수준이며, 울 생산량은 16만 5천 톤 수준임.
- 천연꿀의 생산량은 1만 톤 수준이나 품질이 뛰어나 수출을 하고 있음.

표 2-30. 뉴질랜드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두,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사육두수	9,015	9,511	9,715	9,961	9,864	10,021	10,180
	생산량	573	660	637	639	639	627	607
양	사육두수	42,260	39,880	34,088	32,384	32,563	31,132	31,263
	생산량	533	543	598	478	470	465	447
돼지	사육두수	369	341	325	323	335	327	314
	생산량	47	51	51	47	47	50	50
닭	사육마리수	13,000	20,939	19,733	13,147	13,505	13,800	14,480
	생산량	105	158	147	137	144	160	172
오리	사육마리수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생산량	1	1	1	1	1	1	1
천연꿀		10	10	12	13	13	9	10
계란		43	51	53	52	52	51	54
울(양털)		257	216	158	186	176	164	165

자료: FAO STAT.

- 뉴질랜드는 축산물과 함께 낙농품의 품질 역시 뛰어난 국가임. 특히 낙농품은 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낙농품 중 우유 생산량이 714만 4천 톤으로 가장 많음. 분유의 생산도 2012년 129만 6천 톤으로 많은 편이며, 주로 전지분유(93만 톤)가 생산되고 있음.

- 치즈와 버터는 분유에 비하여 생산량은 적으나 품질이 뛰어나며, 2012년 기준으로 각각 27만 5천 톤, 48만 9천 톤이 생산되었음.

표 2-31. 뉴질랜드의 낙농품 생산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우유	5,190	6,445	6-783	6,725	6,696	7,144	7,144
치즈	297	297	288	308	268	270	275
버터	344	379	419	413	441	459	489
탈지분유	187	225	320	415	360	366	366
전지분유	449	585	677	768	947	930	930
유장	23	22	25	21	21	21	21
연유	2	2	2	2	2	2	2
버터밀크(건조)	31	43	50	53	42	25	25

자료: FAO STAT.

3.3. 대 뉴질랜드 농산물 교역 현황

-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의 농축산물 교역은 우리나라의 수입이 수출 보다 월등이 많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은 2006년 3억 5,210만 달러에서 2013년 4억 3,49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은 2006년 1,470억 달러에서 2013년 2,68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비하면 규모가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동기간 수입은 1.2배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1.8배 증가하였음. 2013년 농축산물 분야 무역 적자는 4억 810만 달러 수준임.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에서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으로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에서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으로 수입보다 더 낮은 수준임.

표 2-32. 한국·뉴질랜드 농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A)	352.1	392.4	428.8	314.9	398.6	553.8	468.4	434.9
수출(B)	14.7	16.0	16.4	17.5	19.1	22.7	24.3	26.8
무역수지(B-A)	-337.5	-376.4	-412.4	-297.4	-379.5	-531.1	-444.1	-408.1

주: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낙농품, 쇠고기, 키위, 호박 등임. 특히 낙농품과 쇠고기 수입은 뉴질랜드 수입의 31.1%, 26.8%를 차지하고 있음.
- 낙농품 수입은 2000년 2,94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억 4,18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낙농품 중에서는 특히 치즈 수입이 급증하였음. 치즈 다음으로 낙농품 중 수입이 많은 품목은 버터와 조제분유임.
-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은 2000년 2,970만 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1억 1,14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쇠고기는 주로 냉동갈비가 수입되고 있음.
- 과일 중에는 키위 수입이 가장 많으며,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은 20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키위 수입은 3,060만 달러 수준임.
- 채소류 중에서는 호박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적인 이점이 있음. 2013년 뉴질랜드산 호박의 수입은 1,440만 달러임.
- 그 외에는 소시지 제조 원료인 양장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녹용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수입액은 각각 1,910만 달러, 1,530만 달러임.

표 2-33. 우리나라의 뉴질랜드산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총수입액	99.6	368.0	314.9	398.6	553.8	468.4	434.9	485.7	100.0
낙농품	29.4	70.1	77.3	113.8	166.9	144.0	141.8	150.9	31.1
- 치즈	20.7	39.2	55.9	77.8	93.8	100.9	102.2	99.0	20.4
- 버터	1.3	3.7	4.9	12.2	22.2	14.1	11.1	15.8	3.2
- 조제분유	1.1	13.1	6.8	12.6	15.2	13.8	11.3	13.4	2.8
- 생우유	0.8	0.9	3.3	5.1	17.0	7.6	4.6	9.7	2.0
- 탈지분유	1.1	2.8	1.9	1.8	8.2	0.9	5.4	4.8	1.0
- 전지분유	0.5	0.3	0.1	0.6	6.1	2.5	2.8	3.8	0.8
쇠고기	29.7	178.7	88.7	120.4	156.8	119.0	114.0	129.9	26.8
키위	7.1	42.7	46.6	48.9	66.5	54.6	30.6	50.6	10.4
기타 축산조제품	5.4	8.2	17.9	31.3	59.6	33.7	31.6	41.7	8.6
호박	0.4	5.3	8.7	11.5	14.3	17.6	14.4	15.4	3.2
양장	2.5	9.1	8.3	10.9	11.8	14.6	19.1	15.2	3.1
녹용	6.7	10.0	8.6	10.9	11.0	12.3	15.3	12.8	2.6
혼합조제식료품	0.6	1.3	8.0	8.2	9.5	8.8	7.9	8.7	1.8
채소종자	1.1	1.5	1.0	1.1	2.9	4.8	8.5	5.4	1.1
육즙	1.5	2.9	3.1	4.1	4.9	4.9	6.2	5.3	1.1

주: 총수입액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이며,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농림축산물 품목분류 코드)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젤라틴, 커피조제품, 라면,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음료 등 주로 가공식품임. 김치와 배가 일부 수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생산과 연계된 수출은 미미한 수준임.
- 젤라틴 수출은 2013년 950만 달러 수준이며, 대 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 중 29%를 차지하고 있음.
- 커피조제품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대 뉴질랜드 수출에서도 주요 품목 중 하나임. 2013년 뉴질랜드로의 수출액은 710만 달러이며, 뉴질랜드 수출 중 27.7%를 차지함.

- 김치 수출은 2013년 80만 달러 수준이며, 뉴질랜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함.
- 배의 수출은 2000년에는 없었으나 2004년부터 수출이 개시되어 2013년에는 20만 달러 수준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함.
- 그 외 간장, 고추장 등도 일부 수출하고 있음.

표 2-34.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농축산물	6.4	12.9	17.5	19.1	22.7	24.3	26.8	24.6	100.0
젤라틴	0.1	1.1	3.9	4.6	4.8	7.1	9.5	7.1	29.0
커피조제품	0.1	0.4	3.2	3.9	6.3	7.1	7.1	6.8	27.7
라면	1.3	2.9	2.5	2.8	2.8	2.6	2.8	2.7	11.2
기타베이커리제품	0.1	0.3	0.6	0.7	1.4	1.5	1.6	1.5	6.1
기타음료	0.0	0.3	0.6	0.7	0.8	1.1	1.2	1.0	4.2
혼합조제식료품	0.2	0.3	0.2	0.3	1.0	0.8	0.8	0.9	3.6
비스킷	0.5	0.3	0.7	1.0	0.8	0.8	1.0	0.9	3.5
김치	0.0	0.2	0.9	0.8	0.8	0.7	0.8	0.8	3.1
곡류조제품	0.7	0.6	0.5	0.8	0.7	0.7	0.5	0.6	2.6
기타파스타	0.0	0.9	0.8	0.7	0.8	0.5	0.7	0.6	2.5
아이스크림	-	0.1	0.3	0.4	0.5	0.5	0.7	0.6	2.3
인스탄트면	-	0.1	0.3	0.1	0.2	0.7	0.7	0.5	2.2
보드카	-	-	0.1	0.1	0.4	0.3	0.6	0.4	1.8
국수	0.3	0.3	0.5	0.7	0.6	0.3	0.1	0.4	1.5
기타소오스제품	0.0	0.0	0.1	0.2	0.2	0.4	0.4	0.3	1.3
단일과실조제품	0.0	0.1	0.2	0.3	0.3	0.3	0.4	0.3	1.2
맥주	0.0	0.0	0.0	0.1	0.1	0.3	0.5	0.3	1.2
간장	0.1	0.2	0.2	0.2	0.2	0.3	0.3	0.3	1.1
고추장	0.1	0.2	0.2	0.2	0.2	0.2	0.3	0.2	1.0
배	-	0.3	0.3	0.2	0.1	0.1	0.2	0.2	0.6

주: 총수입액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이며,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농림축산물 품목분류 코드)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4. 주요 생산 품목 비교

- 영연방 3국의 주요 생산품목들 중에서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현황을 비교한 후 수입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FTA 체결 이후 농업 부문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음.
- 각 국별 농업 개황의 자료를 살펴보면, 영연방 3국은 주로 축산업과 낙농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곡물류 생산에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일과 채소류의 경우 축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검역상의 문제로 대부분의 과일이 수입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뉴질랜드의 키위와 호박은 현재 수입이 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임.

4.1. 축산물 비교

- 영연방 3국의 소 사육두수는 약 5,040만 마리로 우리나라 사육두수의 14.8배에 달하며, 쇠고기 생산량은 423만 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의 15.4배에 달함. 특히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우리나라에 비해 8.3배나 많음. 캐나다 쇠고기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4.7배이며, 뉴질랜드는 방목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사육두수에 비해 쇠고기 생산량이 적어 우리나라 쇠고기 생산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임.
 - 호주는 쇠고기 수출량이 약 95만 톤으로 생산의 41%를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수출량이 34만 톤으로 생산의 26%를 수출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쇠고기 생산량은 영연방 3국 중 가장 적지만, 수출량은 34만 톤으로 전체 생산의 54%를 수출하고 있음.
- 영연방 3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약 1,528만 마리로 우리나라보다 1.6배 많으나, 생산이 선진화되어 있어 생산량은 3배 많은 289만 톤임. 영연방 3국 중에서는 캐나다가 돼지 사육 두수가 많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도 많음.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2.6배에 해당함. 호주와 뉴질랜드는 돼지고기 생산이 각각 우리나라의 0.4배, 0.1배 수준임.

- 호주와 뉴질랜드의 돼지고기 수출은 미미한 편이며, 생산량의 4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캐나다는 돼지고기 수출량이 84만 톤이며, 생산의 34%를 수출하고 있음.
- 닭의 영연방 3국의 사육두수는 27만 수이며, 생산량은 217톤 수준으로 사육두수는 우리나라의 1.8배이지만, 생산량은 3.6배임. 이는 우리나라 계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임. 영연방 3국 중 닭고기 사육두수에 비하여 닭고기 생산이 많은 국가는 호주이며, 캐나다는 영연방 3국 중 계란 생산이 더 많은 국가임.
- 캐나다는 닭고기를 약 13만 톤 수출하고 있으나, 수입도 14만 톤을 하고 있음.

표 2-35.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과의 축산물 생산비교

단위 : 천 톤, 천 마리

		한국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소	사육두수	3,394	50,399	27,886	12,491	10,022
	생산량	276	4,232	2,300	1,307	624
	수입량	264	159	4	151	4
	수출량	2	1,625	947	338	340
돼지	사육두수	9,323	15,277	2,237	12,714	325
	생산량	976	2,891	343	2,499	49
	수입량	357	278	134	117	27
	수출량	2	872	30	842	0
닭	사육두수	148,516	270,716	91,588	165,200	13,928
	생산량	609	2,171	980	1,032	159
	수입량	91	144	0	144	-
	수출량	18	161	28	129	4
계란(생산량)		595	688	198	438	52

자료: FAO STAT(2010~2012년 평균)

- 우리나라 한우와 영연방 3국의 쇠고기 생산비를 비교해보면, 600kg 1두 기준으로 한우 생산비는 569만원으로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약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우 사료비는 229만원 수준이며, 이는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5배, 3배 높은 수준임. 또한 농후사료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도 호주의 3배, 캐나다의 2배 수준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사료원가는 kg당 415원이며,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임.

- 쇠고기 생산비 중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우가 40%이며, 호주는 15%, 캐나다는 21%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은 영연방 3국에 비해 불리한 구조임.
- 뉴질랜드는 캐나다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2-36. 한국과 영연방 3개국 소 생산비용 비교

단위: 천원/마리

구분	생산비용(2011년 기준)		
	사료비		총계
	사료원가(원/kg)	사료비소요액(600kg 기준)	마리당생산비(600kg 기준)
한국(한우)	415	1,622(농후사료) 2,285(조사료포함)	5,690
호주(육우)	262	480(비육장)	3,183
캐나다(육우)	271	661(비육장)	3,106

- 주 1) 호주, 캐나다 생산비는 지육 100kg 기준을 한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함(생체 600kg 지육률 60% 적용시 지육 360kg).
- 2) 분석 대상국 생산비는 비육장(Feedlot) 비용(사료비+사료비외+임금 등) + 송아지 구입비로 추정한 것임.
- 3) 사료원가는 농후사료 기준이며, 북미와 호주의 경우 배합 원료곡 차가 있으며, 배합비율 정보가 미반영된 단순평균임. 미국과 캐나다는 옥수수와 소맥가격, 호주는 소맥, 보리, 옥수수 가격을 평균하였음. 환율은 2011년은 1,108원/달러 적용, 캐나다/미달러=1.0118배, 호주/미달러=1.0327배

자료: Canfax Research Service(2012). International Cost of Production Analysis, agri benchmark: Feedlot Analysis
 USDA. ERS. Feed Outlook(2014), Dan Shike(2014), Beef Cattle Feed Efficiency. University of Illinois.

- 돼지고기 생산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kg당 생산비가 2,478원이고 캐나다는 1,675원으로 캐나다에 비해 약 1.5배 높음. 또한 사료비는 캐나다의 1.3배 수준임.
- 돼지고기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53%이며, 캐나다는 59%임. 돼지고기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절대 비중은 캐나다가 더 높지만, 실제 투입되는 절대금액은 우리나라가 캐나다 보다 높은 수준임.
- 영연방 3국의 닭고기와 호주와 뉴질랜드는 돼지고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았음.

표 2-37. 한국과 영연방 3개국 돼지 생산비용 비교

단위: 원/kg

구분		생산비용(2011년 기준)	
		사료비 소요액	마리당 생산비
돼지	한국	1,322	2,478
	캐나다	987	1,675

주 1) 한국은 2012년 기준이며 캐나다는 2010년 기준임.
 2) 환율(유로화) 1532.9으로 환산하였으며 110kg 기준임.
 자료: piginational 2013.09~12

- 영연방 3국의 축산물 국제경쟁력을 살펴보면,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RCA 지수가 1이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는 캐나다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닭고기는 영연방 3국 모두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영연방 3국 모두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됨. 특히 쇠고기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높아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됨. 돼지고기는 캐나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며,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적집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표 2-38.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지수 비교(RCA)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EU	칠레
쇠고기	0.1	5.2	1.2	3.1	1.0	1.0	0.2
돼지고기	0.0	0.2	2.7	0.0	1.3	1.6	1.7
닭고기	0.3	0.1	0.3	0.1	1.8	0.8	1.2

주 1. FAO STAT 2009~2011년 평균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하였음.
 주 2. RCA 지수가 1이상이면 국제경쟁력이 있음.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은 2000년 약 24만 톤에서 2013년 27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연방 3국으로의 수입 비중은 동기간 41.9%에서 65.3%로 증가하였음.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해소되기 시작한 이후 급증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호주산 쇠고기는 주로 뼈 없는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뼈 있는 것도 약 3.4만 톤 수준으로 수입이 되고 있음. 뼈 있는 쇠고기는 갈비 부위이며, 냉장 갈비는 거의 대부분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음.
- 캐나다산 쇠고기 역시 광우병 문제로 2006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음. 현재 수입되는 물량은 적은 편이나 수입 증가율은 높은 편임. 캐나다산 쇠고기는 주로 냉동 갈비 형태로 수입되고 있음.
-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꾸준히 수입이 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주로 냉동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수입되고 있음. 냉동갈비 수입이 많음.
 -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일반 소비자들이 정육점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주요 소비처는 식당과 급식업체 등임. 식당과 급식업체 등에서는 양념이 된 불고기, 양념갈비 찜, 갈비탕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소를 사육할 때 곡물 비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유의 풀향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구이용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우리나라 한육우 2등급 이하의 저가 쇠고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쇠고기는 영연방 3국 중 특히 호주산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됨. 뉴질랜드산은 호주산 보다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뉴질랜드산 냉동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저가 쇠고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산 쇠고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2-39. 우리나라의 쇠고기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237.9	178.3	219.6	261.2	307.6	264.4	267.6	279.9	100.0
영연방 3국	99.8 (41.9)	174.3 (97.8)	201.3 (91.7)	172.8 (66.2)	187.0 (60.8)	166.8 (63.1)	174.7 (65.3)	176.2 (63.1)	63.0
호주	70.0	126.3	160.9	138.5	152.7	137.9	147.2	145.9	52.1
뉴질랜드	11.0	48.0	40.4	34.3	34.3	27.5	25.3	29.1	10.4
캐나다	18.8	0.0	-	-	-	1.4	2.1	1.2	0.4
미국	133.2 (56.0)	0.7 (0.4)	14.1 (6.4)	84.8 (32.5)	115.3 (37.5)	95.1 (36.0)	92.1 (34.4)	100.9 (36.0)	36.0
기타	4.9	3.3	4.2	3.6	5.2	2.5	0.8	2.8	1.0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은 국내 생산량 변화와 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2000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2000년에는 약 14만 톤을 수입 하였으나 2013년에는 약 30만 톤을 수입하고 있음. 영연방 3국으로의 수입은 2013년 약 4만 톤 수준이며, 미국과 EU와의 FTA 체결 이 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주로 냉동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목살과 삼겹살 위주로 수입 을 하고 있음. 냉장 돼지고기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의 약 8% 수준이며, 삼겹살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영연방 3국 중에서는 주로 캐나다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산 수 입도 주로 냉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는 우리나 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 냉장 삼겹살 수입 중 캐나다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는 약 21% 수준이 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냉장 삼겹살 수입의 40% 이상이 캐나 다산이었음.
- 돼지고기의 경우 영연방 3국 중 캐나다산의 냉장 삼겹살이 국내산 삼겹살과 대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로 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표 2-40.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139.0	261.4	338.7	289.2	487.1	380.9	292.8	386.9	100.0
영연방3국	27.1 (19.5)	58.5 (22.4)	65.1 (19.2)	55.1 (19.0)	81.3 (16.7)	59.1 (15.5)	40.0 (13.7)	60.1	15.5
호주	1.1	2.5	1.1	0.3	1.0	0.6	0.4	0.7	0.2
뉴질랜드	-	0.1	-	-	0.0	-	-	0.0	0.0
캐나다	26.1	55.9	63.9	54.7	80.2	58.6	39.7	59.5	15.4
미국	9.6 (6.9)	59.5 (22.8)	87.0 (25.7)	75.4 (26.1)	150.1 (30.8)	120.1 (31.5)	101.0 (34.5)	123.7	32.0
EU	100.8 (72.5)	109.9 (42.0)	141.2 (41.7)	107.2 (37.1)	205.1 (42.1)	155.7 (40.9)	114.3 (39.0)	158.4	40.9
칠레	- (0.0)	31.1 (11.9)	43.5 (12.8)	43.4 (15.0)	40.5 (8.3)	37.1 (9.7)	30.4 (10.4)	36.0	9.3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1만 톤 수준이며, 전체 생산에 비하여 수입은 적은 편임.
- 우리나라의 주요 닭고기 수입국은 브라질, 미국, 덴마크이며, 영연방 3국으로부터는 사실상 수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준임. 닭고기는 제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 냉동이 수입이 되며 국내 닭고기가 경쟁력이 높아 수입 의존도가 낮은 편임.
- 따라서 영연방 3국으로부터 닭고기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2-41. 우리나라의 닭고기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76.7	49.9	48.8	94.6	118.9	116.7	111.3	115.6	100.0
영연방3국	1.2 (1.5)	0.1 (0.2)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호주	0.0	0.0	0.0	0.0	0.0	0.0	-	0.0	0.0
뉴질랜드	-	-	-	-	-	-	-	-	0.0
캐나다	1.1	0.0	-	-	-	-	-	-	0.0
브라질	- (0.0)	1.1 (92.3)	22.6 (46.3)	34.0 (36.0)	24.9 (21.0)	56.9 (48.8)	59.4 (53.4)	47.1	40.7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미국	59.7 (77.8)	22.6 (45.3)	23.5 (48.1)	56.2 (59.4)	87.9 (73.9)	55.4 (47.5)	46.0 (41.4)	63.1	54.6
덴마크	0.1 (0.1)	20.3 (40.8)	1.6 (3.4)	3.3 (3.5)	3.9 (3.3)	3.4 (2.9)	5.4 (4.9)	4.2	3.7

자료: Global Trade Atlas

4.2. 낙농품 비교

- 우리나라 우유 생산량은 2010~2012년 평균 165만 톤이며, 수입량은 1만 2천 톤 그리고 수출량은 약 1천 톤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나라 우유 수입은 생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영연방 3국의 동기간 우유 생산량은 1,237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7.5배에 해당하며, 수입량은 4.2만 톤인 것에 비해 수출량은 18만 5천 톤 수준임.
 - 영연방 3국 중 우유 생산량은 뉴질랜드가 약 700만 톤으로 가장 많으며, 수출량도 10만 4천 톤 수준임. 그 다음으로 캐나다의 생산이 282만 6천 톤으로 많으나, 수출량은 호주가 7만 6천 톤으로 더 많음.
- 우리나라 치즈 생산은 2만 5천 톤 수준이나 수입은 이보다 약 2.5배 많은 6만 2천 톤임. 영연방 3국의 치즈 생산량은 103만 1천 톤이며, 수출량은 42만 1천 톤임. 영연방 3국 중 치즈 생산량은 캐나다가 41만 7천 톤으로 가장 많으나 수출은 뉴질랜드가 25만 3천 톤으로 가장 많음. 뉴질랜드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음.
 - 호주도 치즈를 15만 8천 톤 수출하고 있음.
- 버터는 우리나라 생산량인 2천 톤 수준이나 수입은 7천 톤 규모임. 영연방 3국의 버터 생산량은 67만 5천 톤이며, 수출량은 44만 5천 톤 규모로 생산의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음. 영연방 3국 중 버터 최대 생산국은 뉴질랜드이며, 버터 생산의 약 83%를 수출하고 있음.
- 탈지분유의 경우 우리나라 생산은 9천 톤 수준이나 수입은 1만 7천 톤으로 생산량의 약 1.9배를 수입하고 있음. 영연방 3국의 탈지분유 생산량은 61만 톤이며,

생산의 약 80%인 48만 5천 톤을 수출하고 있음. 영연방 3국 중 탈지분유 최대 생산국 및 수출국은 뉴질랜드이며, 33만 4천 톤을 수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지분유 생산량은 2천 톤 수준이며, 수입량은 3천 톤 수준임. 영연방 3국의 전지분유 생산량은 약 107만 톤이며, 수출량은 97만 톤에 달함. 영연방 3국 중 뉴질랜드가 전지분유 최대 생산국이며 생산량은 93만 6천 톤으로 영연방 3국의 생산량 중 약 88%에 해당함. 뉴질랜드의 전지분유 수출량은 85만 톤임.

표 2-42.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과의 낙농품 생산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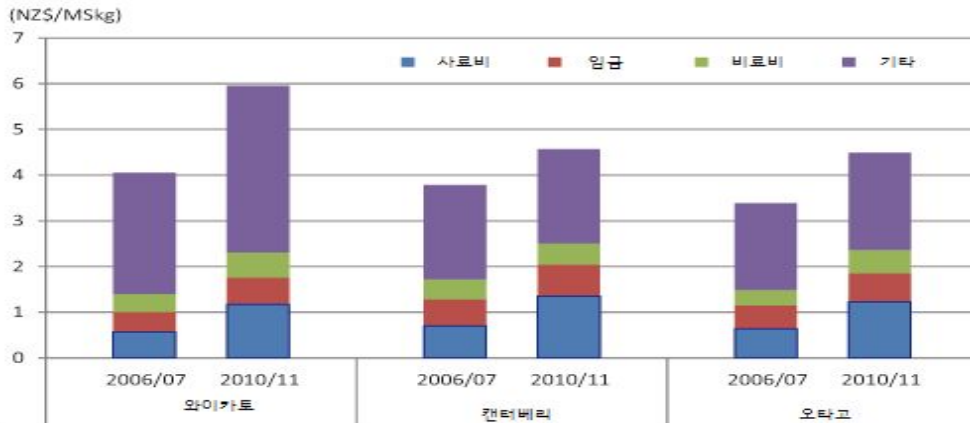
단위: 천 톤

		한국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유	생산량	1,650	12,370	2,549	2,826	6,995
	수입량	12	42	9	32	2
	수출량	1	185	76	4	104
치즈	생산량	25	1,031	343	417	271
	수입량	62	101	71	25	5
	수출량	0	421	158	9	253
버터	생산량	2	675	124	88	463
	수입량	7	28	18	9	1
	수출량	0	445	59	3	383
탈지분유	생산량	9	610	168	78	364
	수입량	17	11	5	3	3
	수출량	1	485	142	9	334
전지분유	생산량	2	1,069	132	1	936
	수입량	3	13	10	2	1
	수출량	0	969	118	1	850

자료: FAO STAT(2010~2012년 평균),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뉴질랜드의 주요 원유 생산 지역은 와이 카토, 캔터베리, 오타고 등임. 이들 주요 생산지의 원유생산비를 비교해보면, 2006/07년도에 비해 2010/11년도에 비해 와이 카토 37.4%, 캔터베리 20.9%, 오타고 32.8%가 상승하였음.
-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1년 기준으로 와이 카토 약 17%, 캔터베리 28%, 오타고 26% 수준임.

그림 2-1. 뉴질랜드 원유생산비 중 사료비 비율



주 1) 기타에는 가족 노동비를 포함시켰음.

2) Milk solid(MS)는 고형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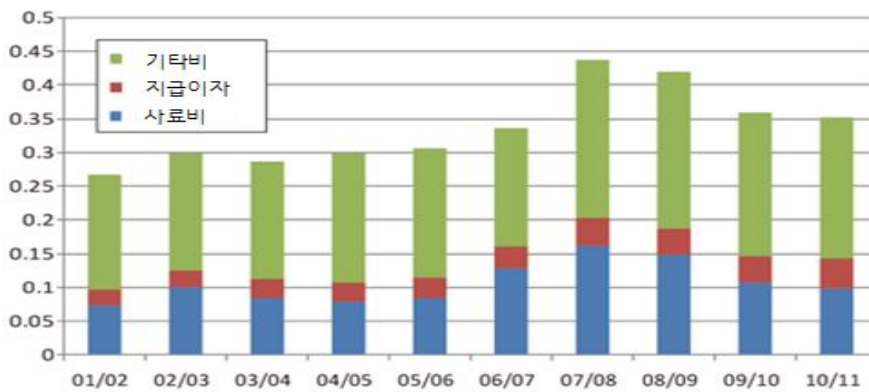
자료: 前田 昌宏、岩波 道生. 2012.6. 「뉴질랜드 우유 생산 동향 증산 요인과 향후 전망」.

○ 호주의 1리터당 우유생산비는 2001/02년 0.27 호주달러 수준이었으나, 2009/10년에는 0.36 호주달러로 약 34.6%가 상승하였음.

○ 호주의 우유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며, 사료비는 동기간 대비 43.8%가 증가하였음.

그림 2-2. 호주의 원유 1리터당 생산 비용 추이

단위: 달러/리터



주: 2010/ 11년도는 잠정치임.

자료: ABARE.

- 낙농품별 영연방 3국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면, 우유는 뉴질랜드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주와 캐나다는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치즈, 버터, 분유 등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우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순수입국임. 영연방 3국은 낙농품 생산량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많으며, 특히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수출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생산량의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사용하여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뉴질랜드와 호주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임. 낙농품 부분에서 영연방 3국과의 FTA로 인한 영향은 주로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뉴질랜드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우유보다는 치즈, 버터, 탈지·전지분유 부분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됨.

표 2-43. 낙농품의 국제경쟁력 지수 비교(RCA)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EU	칠레
우유	0.1	0.5	0.0	1.0	0.1	2.1	0.0
치즈	0.0	1.1	0.1	2.6	0.3	1.9	0.2
버터	0.0	1.4	0.0	15.6	0.2	1.6	0.2
전지분유	0.0	2.2	0.0	25.6	0.1	0.8	0.7
탈지분유	0.2	3.0	0.1	12.3	1.6	1.1	0.1

주 1. FAO STAT 2009~2011년 평균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하였음.

주 2. RCA 지수가 1이상이면 국제경쟁력이 있음.

- 우리나라 우유 수입은 지방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으며 냉동 크림과 그 외(기타)의 형태로 수입이 되고 있음. 2011년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냉동 크림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00년에는 영연방 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이었지만, EU산 수입이 증가하면서 영연방 3국으로의 수입비중은 감소하였음. 영연방 3국의 2011~2013년 평균 수입 비중은 41%임. 특히 냉동 크림(지방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품)은 대부분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입이 되고 있음.
 - 기타(지방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품)는 EU로부터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음.

- 우유의 경우 일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낮고 수입 물량이 적어 FTA로 관세가 떨어져도 영연방 3국으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표 2-44. 우리나라의 우유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수량	비중
총수입	3.1	3.8	2.6	7.6	19.5	13.7	12.1	15.1	100.0
영연방3국	3.1 (99.7)	3.6 (94.9)	2.2 (85.0)	5.2 (68.2)	8.6 (44.3)	5.1 (37.4)	4.8 (39.7)	6.2	41.0
호주	2.4	3.0	2.2	2.5	3.1	1.9	2.8	2.6	17.2
뉴질랜드	0.7	0.6	0.0	2.7	5.5	3.3	2.0	3.6	23.8
캐나다	-	-	-	-	-	-	-	-	0.0
EU	0.0 (0.0)	0.1 (3.5)	0.3 (11.6)	2.2 (29.6)	6.4 (32.8)	7.4 (53.6)	6.9 (57.2)	6.9	45.6
미국	0.0 (0.3)	0.0 (0.3)	0.0 (0.0)	0.0 (0.0)	2.9 (14.9)	0.5 (3.3)	0.3 (2.8)	1.2	8.1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의 치즈 수입은 2000년 1만 톤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40만 3천 톤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영연방 3국으로부터 치즈 수입은 약 3천 톤 수준에서 13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2011~2013년 평균 영연방 3국의 치즈 수입 점유율은 34.9%임. 치즈 수입은 영연방 3국 중 뉴질랜드산 수입이 가장 많으며, 호주로의 수입도 일부 있음. 뉴질랜드산 치즈는 국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관세가 감축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치즈는 주로 모짜렐라치즈와 체더치즈 그리고 크림치즈이며,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치즈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모짜렐라치즈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지만, 2013년도 뉴질랜드산 점유율도 31.4% 수준으로 높은 편임.
 - 체더치즈는 주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13년도 뉴질랜드산 점유율은 55%임. 2013년도 호주산 체더치즈의 점유율도 13.5% 높은 편임. 체더치즈는 주로 영연방 3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음.

- 크림치즈는 미국산이 주로 수입이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호주산의 점유율은 2011년도 49%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2013년에는 21%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향후 관세가 감축되면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뉴질랜드산의 점유율도 약 7.4% 수준임.

- 낙농품 중에서는 영연방 3국 FTA로 치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뉴질랜드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됨.

표 2-45. 우리나라의 치즈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10.0	14.9	17.5	258.7	357.9	359.7	403.0	373.6	100.0
영연방3국	2.9 (28.6)	3.6 (23.9)	4.3 (24.4)	113.8 (44.0)	127.6 (35.7)	134.2 (37.3)	129.1 (32.0)	130.3	34.9
호주	2.1	3.2	3.4	34.8	33.3	33.3	26.8	31.1	8.3
뉴질랜드	0.4	0.4	0.9	77.8	93.8	100.9	102.2	99.0	26.5
캐나다	0.4	0.0	0.0	1.2	0.5	0.0	0.0	0.2	0.0
EU	5.0 (50.3)	5.5 (36.9)	5.6 (32.0)	75.9 (29.3)	140.2 (39.2)	140.6 (39.1)	188.4 (46.7)	156.4	41.9
미국	1.8 (18.0)	3.9 (26.1)	7.0 (40.1)	38.5 (14.9)	66.0 (18.4)	71.2 (19.8)	74.4 (18.5)	70.5	18.9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 버터 수입은 2000년에는 1천 톤 미만이었으나, 2013년에는 5천 6백 톤으로 증가하였음. 영연방 3국으로부터 수입은 2000년 800톤에서 2013년 3천 700백 톤으로 증가하였음. 2011~2013년 평균 수입 점유율은 73.6%임. 최근 버터 수입 감소와 더불어 미국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영연방 3국으로의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음.
- 영연방 3국 중에서는 뉴질랜드산 수입이 가장 많으며, 호주산로부터의 수입도 되고 있음.
- 버터 역시 치즈와 같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은 품목이며 향후 버터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표 2-46. 우리나라의 버터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0.9	5.0	4.1	6.4	8.6	7.4	5.6	7.2	100.0
영연방3국	0.8 (86.2)	4.5 (89.1)	3.4 (83.2)	5.0 (78.6)	6.9 (80.8)	5.3 (71.1)	3.7 (66.1)	5.3	73.6
호주	0.1	3.1	2.1	1.7	2.1	1.7	0.9	1.5	21.5
뉴질랜드	0.7	1.4	1.3	3.3	4.8	3.6	2.8	3.8	52.2
캐나다	-	-	-	0.0	0.0	0.0	0.0	0.0	0.0
미국	0.0 (3.8)	0.0 (0.2)	0.0 (0.1)	0.1 (2.2)	0.9 (10.9)	1.2 (16.4)	1.3 (22.6)	1.1	15.9
EU	0.1 (10.0)	0.5 (9.1)	0.6 (15.5)	1.1 (17.9)	0.7 (8.0)	0.9 (11.9)	0.6 (11.0)	0.7	10.2

자료: Global Trade Atlas

- 탈지분유 역시 2000년 이후로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영연방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증가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임.
- 영연방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 전체 탈지분유 수입의 82.4%까지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31.8%까지 떨어졌었음.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수입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탈지분유는 주로 호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수입이 되고 있음.

표 2-47. 우리나라의 탈지분유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3.0	6.1	4.9	7.9	33.5	18.8	19.7	24.0	100.0
영연방3국	2.0 (65.6)	5.0 (81.7)	4.1 (82.4)	5.3 (67.0)	10.7 (31.8)	6.6 (35.2)	7.2 (36.6)	8.2	34.0
호주	1.2	3.8	3.1	4.7	7.4	6.1	5.9	6.5	26.9
뉴질랜드	0.7	1.2	0.9	0.5	2.1	0.3	1.3	1.2	5.2
캐나다	-	-	-	0.0	1.1	0.3	0.0	0.5	1.9
EU	0.9 (30.3)	1.1 (18.3)	0.7 (13.2)	1.9 (24.7)	21.6 (64.4)	10.2 (54.2)	6.6 (33.2)	12.8	53.2
미국	0.0 (1.3)	0.0 (0.0)	0.1 (2.4)	0.7 (8.3)	0.9 (2.8)	1.9 (10.3)	5.9 (30.0)	2.9	12.2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한편, 전지분유의 수입은 탈지분유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아 2000년 700톤에서 2013년 2천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영연방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3년 1천 400톤으로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영연방 3국 중에서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주로 수입이 되고 있음.

표 2-48. 우리나라의 전지분유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수량	비중
총수입	0.7	1.7	1.1	1.4	5.3	1.6	2.0	3.0	100.0
영연방3국	0.5 (70.5)	1.6 (92.2)	1.1 (94.7)	1.3 (92.9)	3.7 (71.0)	1.4 (84.0)	1.4 (69.4)	2.2	73.0
호주	0.2	1.5	1.1	1.1	2.3	0.7	0.7	1.2	41.4
뉴질랜드	0.2	0.1	0.0	0.2	1.4	0.7	0.7	0.9	31.6
캐나다	-	-	-	0.0	0.0	-	0.0	0.0	0.0
EU	0.2 (26.0)	0.1 (7.8)	0.1 (5.3)	0.1 (6.7)	1.5 (27.7)	0.2 (14.4)	0.3 (12.7)	0.7	21.9
미국	0.0 (0.0)	- (0.0)	0.0 (0.0)	0.0 (0.1)	0.0 (0.0)	0.0 (0.1)	0.4 (17.8)	0.1	4.0

자료: Global Trade Atlas

- 분유는 탈지분유에서 주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연방 3국 중에서는 주로 호주산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4.3. 키위, 호박 비교

- 축산물과 낙농품 외의 품목 중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호박과 키위임. 호박과 키위는 영연방 3국 중 주로 뉴질랜드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호박 생산은 약 31만 톤 수준이며, 영연방 3국의 생산은 34만 4천 톤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호박생산이 영연방 3국의 생산량 합과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호박 수입량은 약 3만 톤 수준이나 영연방 3국은 2천 톤 수준으로

수입량이 미미한 편임. 반면 수출은 우리나라는 약 1천 톤 수준이나 영연방 3국은 8만 8천 톤 수준이며, 뉴질랜드에서 전량 수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키위(참다래) 생산은 1만 톤 수준이나, 영연방 3국의 생산은 41만 4천 톤으로 우리나라와는 크게 차이가 있음. 특히 뉴질랜드의 생산이 41만 톤으로 가장 많으며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키위 생산국이자 수출국임.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생산되고는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며, 이 두 국가는 키위 수입국임.
- 우리나라는 키위를 연간 약 3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생산량의 92.1%인 37만 8천 톤을 수출하고 있음.
- 호박은 우리나라산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질랜드산도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위 역시 뉴질랜드산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49.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과의 키위, 호박 생산비교

단위: 천 톤

		한국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호박	생산량	309	344	101	88	154
	수입량	29	2	-	0	2
	수출량	1	88	-	-	88
키위	생산량	10	414	3	0	410
	수입량	29	44	22	22	1
	수출량	0	378	-	0	378

자료: FAO STAT(2010~2012년 평균),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표 2-50. 낙농품의 국제경쟁력 지수 비교(RCA)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EU	칠레
호박	1.0	-	-	6.3	-	1.8	-
키위	0.0	0.0	0.0	27.4	0.1	1.2	10.2

주 1. FAO STAT 2009~2011년 평균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하였음.

주 2. RCA 지수가 1이상이면 국제경쟁력이 있음.

- 우리나라의 호박 수입은 2000년에는 1만 톤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2만 4천 톤 가량으로 증가하였음. 주요 수입국은 영연방 3국 중 뉴질랜드

이며, 대부분의 물량이 뉴질랜드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음. 2013년 뉴질랜드산 수입 비중이 98.4%임.

-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호박은 단호박이며 수입시기는 1,2분기에 집중되어 있음. 국내산 단호박은 3분기 이후에 출하가 되는데, 단호박은 저장성이 좋아 3분기 이후에도 뉴질랜드산이 출하가 됨.
- 한편, 국내 단호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표 2-51. 우리나라의 호박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0.9	9.1	19.7	15.2	19.7	24.9	24.3	23.0	100.0
영연방3국	0.8 (95.5)	8.8 (97.5)	18.6 (94.3)	14.2 (93.7)	17.8 (90.3)	22.5 (90.4)	23.9 (98.4)	21.4	93.2
호주	-	-	-	-	-	-	-	-	0.0
뉴질랜드	0.8	8.8	18.6	14.2	17.8	22.5	23.9	21.4	93.2
캐나다	-	-	-	-	-	-	-	-	0.0
통가	- (0.0)	- (0.0)	0.8 (4.2)	0.8 (5.3)	1.8 (9.3)	2.4 (9.6)	0.4 (1.6)	1.5	6.7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 키위 수입은 2000년 8천 6백 톤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4만 3천 5백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2011년에는 7만 톤 이상이 수입되었으나 이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키위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이며, 뉴질랜드산의 비중은 2011~13년 평균 82.9%에 달함. 최근 뉴질랜드의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뉴질랜드산 수입이 감소하고, 또한 칠레산 수입이 증가하면서 뉴질랜드산 수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 키위(참다래)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입 키위 증가는 국내산 생산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2-52. 우리나라의 키위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톤

	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평균(11-13)	
								물량	비중
총수입	8.6	53.3	69.8	56.5	72.4	67.0	43.5	61.0	100.0
영연방3국	7.1 (81.7)	42.7 (80.1)	54.1 (77.5)	48.9 (86.5)	66.5 (91.8)	54.6 (81.5)	30.6 (70.3)	50.6	82.9
호주	-	-	-	-	-	-	-	-	0.0
뉴질랜드	7.1	42.7	54.1	48.9	66.5	54.6	30.6	50.6	82.9
캐나다	-	-	-	-	-	-	-	-	0.0
칠레	0.7 (8.6)	8.0 (15.0)	9.9 (14.2)	7.4 (13.1)	5.6 (7.8)	12.4 (18.5)	12.0 (27.6)	10.0	16.4

자료: Global Trade Atlas

■ 제 3 장

한·영·연방 3국 FTA 추진 현황 및 농업부문 파급영향



제 3 장

한·영연방 3국 FTA 추진 현황 및 농업부문 파급영향

1.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

- 2013년 12월 5일 한·호주 FTA 타결을 비롯하여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가 같은 해 11월 한·뉴질랜드 FTA 또한 타결되었음.
- 현재 한·호주 FTA는 12월에 발효가 예정되어 있고 한·캐나다 FTA와 한·뉴질랜드 FTA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 가서명(initialing) 등 절차에 따라 최종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1.1. 한·호주 FTA

1.1.1. 한·호주 FTA 협상경과

- 2009년 3월 한·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7차례 공식협상 개최 이후 최종합의(13년 12월)하고 2014년 4월 8일 최종 서명을 완료함.
 - 제1차 협상('09.5월, 호주), 제2차 협상('09.8월, 서울), 제3차 협상('09.11월, 호주), 제4차 협상('10.3, 서울), 제5차 협상('10.5월, 호주), 제6차 협상('13.11월, 서울), 제7차 협상('13.12월, 발리)
- 쇠고기·낙농품 양허수준 및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등 주요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차로 '10.5월 이후, 공식 협상은 잠정 중단되었음.

-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호주 정상회담('13.10.9)에서 양국은 한·호주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데 합의함.
 - 2013년 9월, 호주 총선 이후 정권 교체로 호주측이 ISD 수용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후 협상이 급진전됨.
- 2013년 11월 한·호 통상장관회담 계기로 한·호 FTA 제6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으며, 이 협상에서 한·호 FTA상 ISD 조항 반영 및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의견 접근이 이뤄짐.
-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 인도네시아 발리)를 계기로 제7차 한·호주 FTA 공식협상이 개최되어,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되었음.
 -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됨.

1.1.2. 한·호주 FTA 주요 양허내용

- 한·호주 FTA 타결 양허 내역을 살펴보면, 양허제외, TRQ, 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품목수 기준, 579개)로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평가됨. 실례로 품목수 기준으로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취급 비율이 한·미 FTA 12.3%, 한·EU FTA 14.7% 보다 높은 수준임.
- 특히, 쌀, 분유, 돼지고기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농산물 품목수 기준으로는 10.5%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양허제외 비율도 품목수 기준으로 한·미 FTA 1.0%(16개), 한·EU FTA 2.9%(42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그 외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과거 미국 및 EU FTA 타결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허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한·호주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단위 : 개, 천불)

양허유형		한·호주 FTA				한·미 FTA		한·EU FTA	
		세번수	%	대호주 수입액	%	세번수	%	세번수	%
일반 철폐	즉시철폐	254	16.9	807,964	47.0	578	37.8	613	41.8
	2~5년철폐	287	19.0	42,973	2.5	356	23.3	303	20.7
	6~10년철폐	385	25.6	65,097	3.8	408	26.6	335	22.9
소계		926	61.5	916,034	53.2	1,342	87.7	1,251	85.3
장기 철폐	12년철폐	7	0.5	3,134	0.2	40	2.6	24	1.6
	13년철폐	3	0.2	3,954	0.2	0	0.0	27	1.8
	15년철폐	307	20.4	745,994	43.4	108	7.1	98	6.7
	16년철폐	-	-	-	-	2	0.1	1	0.1
	17년철폐	3	0.2	-	-	-	-	-	-
	18년철폐	75	5.0	19,982	0.0	7	0.5	7	0.5
	20년철폐	7	0.5	4,063	0.2	-	-	2	0.1
예외 취급	10년간 50% 감축	12	0.8	12	0.0	-	-	-	-
	계절관세	5	0.3	3,341	0.2	1	0.1	2	0.1
	TRQ	19	0.1	323	6.8	15	1.0	12	0.8
	협정대상양허 제외	158	10.5	23,820	1.4	16	1.0	42	2.9
소계		579	38.5	804,623	46.8	189	12.3	215	14.7
총합계		1,505	100	1,720,657	100	1,531	100	1,466	100

주: * '07~'09 대호주 평균 수입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확보하였음. 발효 첫째 적용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의 기준 물량은 154,584톤이며 ASG는 15년차인 2029년까지 운용이 되고 16년차에 철폐 ASG 기준 물량은 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이며, 연도별 ASG 증가 물량은 ASG 기준 물량의 2%로 설정함.
- 낙농품의 경우 낙농품 중 치즈, 버터, 조제분유의 경우 과거 對호주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TRQ(저율할당관세)를 부여함.
 - 2009~2011년 대호주 평균수입량의 110%를 발효시점 TRQ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TRQ는 매년 전년대비 복리2%씩(단, 조제분유, 치즈는 3%) 추가 증량함.

- 탈지 및 전지분유는 양허제외하였으며, 요구르트·버터·치즈 등은 13~18년 (+TRQ)로 설정하였음.

표 3-2. 한·호주 FTA 협상타결 품목별 양허안

품목명	현행 양허관세	한·호FTA 관세감축	ASG 및 TRQ	품목명	현행 양허관세	한·호FTA 관세감축 (안)	ASG 및 TRQ
쌀	-	양허제외		백삼	222.8	양허제외	
겉보리	324	양허제외		계란 (건조)	27	15년철폐	
쌀보리	299.7	양허제외		치즈 (체더)	36	13년철폐	4,630톤
맥주보리	513	15년철폐	15년/10,000톤	전지분유	176	양허제외	
밀 (제분용)	1.8	즉시철폐		탈지분유	176	양허제외	
대두 (식용기타)	487	양허제외	500톤	조제분유	36	17년철폐	470톤
옥수수 (가공용)	328	7년철폐	7년	버터	89	15년철폐	113톤
감자	304	15년철폐		데어리 스프레드	8	3년철폐	
고구마	385	15년철폐		연유	89	양허제외	
마늘	360	양허제외		발효유	36	15년철폐	
양파	135	양허제외		사과	45	양허제외	
건고추	270	양허제외		배	45	양허제외	
대과	27	7년철폐		포도	45	5년철폐 (12월-4월) 양허제외 (5월-11월)	
쪽파	27	양허제외		복숭아	45	10년철폐	
생강	30	15년철폐		감귤	144	양허제외	
배추	27	5년철폐		단감	45	양허제외	
양배추	27	7년철폐		오렌지	50	7년철폐 (4월-9월) 양허제외 (10월-3월)	20톤
시금치	27	7년철폐		코코넛류	45	5년철폐	
상추	45	18년철폐		기타견과류	30	15년철폐	
무	30	15년철폐		바나나	30	15년철폐	
당근	30	5년철폐		파인애플	30	15년철폐	
수박	45	양허제외		만다린귤	144	18년철폐 (4월-9월) 양허제외 (10월-3월)	
오이	27	15년철폐		쇠고기	40	15년철폐	15년
호박	27	15년철폐		돼지고기	22.5 (냉장삼겹살) 25 (냉동삼겹살)	10년철폐 양허제외	

품목명	현행 양허관세	한·호FTA 관세감축	ASG 및 TRQ	품목명	현행 양허관세	한·호FTA 관세감축 (안)	ASG 및 TRQ
토마토	45	7년철폐		닭고기	20	양허제외 (냉동닭다리)	
					20/18	18년철폐 (그 외)	
딸기	45	양허제외		화훼류	25	10-18년철폐	
메론	45	18년철폐		농산버섯	30	18년철폐	
가지	27	5년철폐		녹차	513.6	양허제외	
참깨	630	양허제외		차(마태)	25	7년철폐	
들깨	40	15년철폐		오리 (냉동)	18	15년철폐	
땅콩	230.5	양허제외		벌꿀	243	양허제외	
홍삼	754.3	양허제외		양고기	22.5	10년철폐	

표 3-3. 한·호주 FTA ASG 품목, 물량, 증량률

실품목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연간 증량률	적용기간(년)
쇠고기	154,584 (‘09-11수입량*110%)	복리2%	15
맥주맥·맥아	147,486 (‘09-11수입량*110%)	복리2%	15
옥수수 (가공용)	33,053 (‘09-11수입량*110%)	복리2%	7
정제설탕	946 (‘09-11수입량*110%)	복리2%	18

1.2. 한·캐나다 FTA

1.2.1. 한·캐나다 FTA 협상경과

- 한·캐나다 FTA의 경우 현재 '05.7월 협상개시 이후 16차례 협상(3차례 실무협상 포함)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기간이 소요되었음.
- 캐나다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08.5월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쇠고기 분쟁 해결에 따라 '12년부터 비공식 협의가 진행되었음.

- 이후 4차례 회기간 회의('12.9·10월, '13.1·10월) 및 제14차 공식협상('13.11.25~29)과 '14.2월 수석대표급 회의 등을 통해 상품 양허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의견 접근하였음.
- 2014년 3월 11일 캐나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실질 타결되었음.
 - 2014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캐나다측 외교통상개발부(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통상차관보(Assistant Deputy Minister, Trade Agreements and Negotiations)간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음.
 -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 챕터로 구성됨.

1.2.2. 한·캐나다 FTA 주요 양허내용

- 한·캐나다 FTA 타결 양허 내역을 살펴보면, 양허제외, TRQ, ASG, 세 번분리,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18.8%(품목수 기준, 282개)로 한·미 FTA(12.3%) 및 한·EU FTA(14.7)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쌀, 분유, 치즈,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민감 농산물 211개 농산물, 품목수 기준으로는 14.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양허제외 비율도 품목수 기준으로 한·미 FTA 1.0%(16개), 한·EU FTA 2.9%(42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그 이외,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및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 미국 및 EU FTA와 최근에 타결된 호주 FTA 타결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허한 것으로 나타남.
 - TRQ(7개 품목, 11개 세번) :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감자분,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 ASG(7개 품목, 20개 세번)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철폐(품목수 기준 81.2%).
- 즉시~10년철폐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87.7%, 한·EU FTA 85.3%

표 3-4. 한·캐나다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단위 : 개, 천불)

양허유형		한·캐나다 FTA				한·미 FTA		한·EU FTA	
		세 번 수	%	대 캐나다 수입액	%	세 번 수	%	세 번 수	%
일반 철폐	즉시철폐	406	27.1	350,050	53.7	578	37.8	613	41.8
	2~5년철폐	387	25.8	143,431	22.0	356	23.3	303	20.7
	6~10년철폐	425	28.3	82,258	12.6	408	26.6	335	22.9
소계		1,218	81.2	575,738	88.4	1,342	87.7	1,251	85.3
장기 철폐	12년철폐	42	2.8	2,019	0.3	40	2.6	24	1.6
	13년철폐	-	-	-	-	0	0.0	27	1.8
	15년철폐	3	0.2	35,017	5.4	108	7.1	98	6.7
	16년철폐	14	0.9	27	0.0	2	0.1	1	0.1
	17년철폐	-	-	-	-	-	-	-	-
	18년철폐	1	0.1	0	0.0	7	0.5	7	0.5
	20년철폐	-	-	-	-	-	-	2	0.1
예외 취급	10년간 50% 감축	1	0.1	0	0.0	-	-	-	-
	계절관세	6	0.4	16,099	2.5	1	0.1	2	0.1
	TRQ	4	0.3	272	0.0	15	1.0	12	0.8
	협정대상양허 제외	211	14.1	22,094	3.4	16	1.0	42	2.9
소계		282	18.8	75,528	11.6	189	12.3	215	14.7
총합계		1,500	100	651,266	100	1,531	100	1,466	100

주: * '09~'11 대 캐나다 평균 수입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 쇠고기 관세(40%)에 대해 15년 장기철폐 확보하고, 갈비 등 주요 세번(9개)에 대해서는 농산물 셰이프가드(ASG)를 설정함.
- 돼지고기(22.5~25%)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는 13년 장기철폐, 기타 부위(냉동)는 5년 철폐로 한·미/한·EU에 비해 3~5년 정도 더 장기로 관세

철폐하였고 돼지고기 삼겹살과 기타 부위(4개 세번)에 대해서는 ASG 설정함.
 - ASG 발동 수준을 '09~'11년 평균소비량의 4%(쇠고기), '08~'10년 평균수입량의 120%(돼지고기)로 설정함으로써 한·미/EU FTA에 비해 보다 실효적인 ASG 도입

○ 낙농품의 경우 분유(36~176%), 치즈(36%), 버터(89%) 등은 양허제외, 천연꿀(243%)은 양허제외에 TRQ를 제공하는데 합의함.

○ 겉보리(324%), 쌀보리(229.7%)는 15년 철폐에 TRQ 제공 및 ASG를 설정하고 식용대두(487%)는 양허제외에 TRQ제공, 맥아(269%)는 12년 철폐에 TRQ 제공

표 3-5. 캐나다, 호주, 미국 FTA의 주요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품목		한·캐 FTA	한·호 FTA	한·미 FTA
쌀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겉보리(324%), 쌀보리(229.7%)	15년+ASG+TRQ	양허제외	15년+ASG+TRQ
	맥아(269%), 맥주맥(513%)	12년+TRQ(맥아)	15년+ASG+TRQ	15년+ASG+TRQ
옥수수	팝콘용 옥수수(630%)	10년	18년	7년+ASG
	종자용 옥수수(328%)	10년	18년	5년
쇠고기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
	식용설육(18%)	11년	15년	15년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25%)	13년+ASG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3년+ASG	10년	10년+ASG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5년/6년	7년/5년	2014.1.1
닭고기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8년	12년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1년	18년	12년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0년/양허제외	10년	10년
오리고기	냉장(18~27%)	10년	15년	10년
	냉동(18~27%)	양허제외	18년	10년/12년
분유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5년 + TRQ	10년 + TRQ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5년	10년
치즈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20년/ 18년 + TRQ	15년 + TRQ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3년 + TRQ	10년 + TRQ

품목		한·캐 FTA	한·호 FTA	한·미 FTA
꿀	천연꿀(243%)	양허제외+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인조꿀(243%)	10년	양허제외	10년
감귤류·오렌지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
	맨더린, 탠저린(144%)	11년	계절관세	15년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사과·배·포도	사과(45%)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배(45%)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고추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냉동고추(27%)	11년	양허제외	15년
마늘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냉동마늘(27%)	11년	18년	15년
양파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냉동 양파(27%)	11년	15년	12년
설탕	원당(3%)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백설탕(35%)	양허제외	18년+ASG	16년+ASG
	착색·착향된 설탕(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6년
인삼류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 7개 세변(222.8-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18년+ASG
	기타 인삼 가공품 등	10년-양허제외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15년+ASG
주류	포도주(15%)	3년(흰포도주 중 아이스와인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맥주(30%)	7년	7년	7년
	스카치 위스키(20%)	5년	15년	5년
	보드카(20%)	10년	10년	5년
차류	커피(생두)(2%)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홍차(40%)	10년	18년	5년
	녹차(513.6%)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자료: 농식품부 설명자료

1.3. 한·뉴질랜드 FTA

1.3.1. 한·뉴질랜드 FTA 협상경과

-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현재 '09.6월 협상개시 이후 최근 2014년 10월까지 총 9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음.

- 양국은 농축산 분야의 양허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0년 5월 4차 협상 이후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으나,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한 양국의 통상장관 회담 결과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재개에 합의하였고 이듬해인 2014년 2월 제5차 공식협상이 재개하였음.
- 이후 제6차(3월), 제7차(6월), 제8차(8월)의 공식협상과 회기간 2회(4월, 9월)의 비 공식 협상을 추진함. 2014년 10월 15~16일 양일간 열린 제9차 협상에서 양국은 주요 쟁점이었던 상품, 원산지, 협력 등에서 대다수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함. 2014년 11월 15일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선언함.

13.2. 한·뉴질랜드 FTA 주요 양허내용

- 한·뉴질랜드 FTA가 정부간 공식협상 5년 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가운데,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품목과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타결하였음.
- 한·뉴질랜드 FTA 농산물 분야 자유화율은 87%로 한·미 FTA(98%), 한·EU FTA(97.2%)보다 낮은 수준임.
 - 농산물 분야 자유화수준은 전체 1,505개 농산물 중 194개를 제외한 87.1% 수준
- 쌀을 비롯하여, 보리, 대두, 감자(칩용 제외), 고구마, 당근, 마늘, 양파, 고추, 생강, 수박, 토마토, 딸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오렌지, 참깨, 땅콩, 인삼, 녹차, 천연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194개(품목수 기준 12.9%) 품목들은 대부분 양허제외 되었으며, 또한 뉴질랜드의 주요 관심 품목인 낙농품 중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은 TRQ를 제공하는 대신 관세감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그 밖에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하였음.
 - TRQ(4개 품목, 25개 세 번) 증량 품목으로는 탈전지분유, 연유, 치즈, 버터, 조제분유 등이며, 계절관세(2개 품목, 2개 세번)는 감자와 호박이, 부분감축(6개 품목, 12개 세번)에는 옥수수, 콩, 맥아, 전분, 사료용 근채류 등이고, 농산물 세이프 가드(ASG) 품목으로 쇠고기를 설정하였음.

- 쇠고기 관세(40%)에 대해 15년 장기철폐하기로 합의하여, 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주요 세번(8개)에 대해서는 ASG '09~'11년 평균 수입량의 110%로 설정하였으며, 증량율은 복리 2%로 합의하였음.
- 낙농품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를 부여하고, 그 외 버터(10년), 치즈(7~15년), 조제분유(13년)는 관세를 철폐하면서 각각 TRQ를 제공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측에 합의하였음.
- 사과, 배, 포도, 감귤, 딸기, 자두, 감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키위는 6년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대두와 옥수수는 10년간 50% 관세를 감축을, 식용감자는 칩용에 한해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기타감자는 양허제외 하였음. 그 외 호박(27%)은 계절관세(12~5월 5년 철폐, 6~11월 현행관세 유지), 마늘(냉동, 27%)은 18년 철폐, 양파(냉동, 27%)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표 3-6.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FTA의 주요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품목		한·뉴 FTA	한·호 FTA	한·캐 FTA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 겔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 맥아(269%), 맥주맥(513%)	10년간50%감축(맥아) /양허제외	15년+ASG+TRQ	12년+TRQ(맥아)
옥수수	○ 팝콘용 옥수수(630%)	10년간 50% 감축	18년	10년
	○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50% 감축	18년	10년
콩	○ 식용 콩(487%)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간장·대두박용은 즉시)
	○ 기타(487%)	양허제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은 10년간 50% 감축)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종자용 10년)
	○ 칩용 감자(304%)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 감자분(304%)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ASG+TRQ
쇠고기	○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양허제외
	○ 식용설육(18%)	15년	15년	11년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양허제외	13년+ASG
	○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15년	13년+ASG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18년/양허제외	7년/양허제외	5년/6년
닭고기	○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8년	양허제외
	○ 절단하지 않은 닭(18, 20%)	18년/양허제외	18년	10년/11년
	○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양허제외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분유	○ 탈지분유·연유(176, 89%)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 조제분유(36, 40%)	13/15년+TRQ	13/15년+TRQ	양허제외
	○ 혼합분유(36%)	10년/15년	13년/15년	양허제외
치즈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12/15년+TRQ	20년/18년+TRQ	양허제외
	○ 체다치즈(36%)	7년+TRQ	13년+TRQ	양허제외

품목		한·뉴 FTA	한·호 FTA	한·캐 FTA
버터	o 버터(89%)	10년+TRQ	15년+TRQ	양허제외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감귤류·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계절관세	11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사과·배·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배(45%)	양허제외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양허제외
키위	o 키위(45%)	6년	계절관세(현행/15년)	10년
호박	o 호박(27%)	계절관세(5년/현행)	15년	10년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양허제외	11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18년	18년	11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15년	15년	11년
인삼류	o 뿌리삼류(222.8, 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자료: 농식품부 설명자료

2. 분석모형

- o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전망모형(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ASMO)을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의 파급영향을 분석함.
 - KREI- KASMO은 국내 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으로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취급함.
- o KREI-KASMO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망부문, 재배업부문 전망부문, 축산부문 전망부문, 농가인구 전망부문, 총량부문 전망부문으로 크게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세부구조를 요약하면, 먼저 주요 거시변수부문은 실질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을 전망하도록 구성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자율,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 통계청, OECD, Global Insight Inc.등 관련기관 전망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미국의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Annual Energy Outlook 전망치를, 국내 총 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전망치를 이용하고, 또한 국제곡물가격 및 축산물 가격은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의 전망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이용함.
- 투입재 가격 전망부문은 농기구가격, 사료비, 영농광열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농업 노임, 농지임차료 등을 전망하도록 설정됨.
- 재배업부문은 곡물, 채소, 과채, 과일, 특용작물로 구분되고 각 품목은 재배면적함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수입수요함수, 수급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되어 품목별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또한 재배업 부문은 크게 하계 재배 작목, 과수작목, 동계 재배 작목으로 구분되는데 하계 재배 작목과 동계 재배 작목은 생산자의 재배 작목 선택의 상충(trade-off)관계가 반영되도록 연립방정식체계로 각각 구성³⁾.
- 과수부문의 작목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6개 작목이고, 각 작목은 별도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각 수요와 공급부분에서 작목 간 대체관계가 반영되도록 구성.
- 축산부문의 작목은 한육우, 낙농,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낙농은 치즈, 버터, 분유, 발효유, 연유로 세분류됨.
 - 사육두수 등과 같은 공급측 함수는 연령별 생존율 등을 적용한 생물학적 모형으로, 수요 및 수입수요함수 등의 수요부문 함수는 계량경제모형으로 추정되어 축종별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하도록 구성

3) 품목별 생산 자료는 작물의 생물학적 요인(정식시기와 수확시기를 고려한 재배력)을 반영한 연산년도 또는 마케팅연도를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농가가 5월에 정식을 하고 10월 수확을 한다면 이 작물의 연산년도는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가 된다.

- 농업총량부분은 농업요소부문 전망치와 품목별 생산량과 가격 전망치를 이용하여 농업생산액, 농업소득, 농업부가가치 등의 총량지표를 계산하도록 설정. 또한 호당 쌀 직불제가 포함된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 농가경제의 전망치가 산출되며, 경지면적, 경지이용면적, 경지이용률 등 전체경지면적의 전망과 무역수지(수출, 수입), 자급률 등이 세부품목으로부터 전망치를 합산하여 계산되도록 구성.
- KREI-KASMO은 기존의 KREI-KASMO에서 약용작물, 시금치, 상추, 생강, 벌꿀의 5개 품목을 추가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 따라서, 재배업 45개와 축산업 9개로 총 54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품목 중 감자는 봄, 여름, 가을로, 배추와 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였고, 파는 대파, 쪽파로 세분.
- 이들 품목들은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의 96.3%, 축산업의 98.1% 등 전체 농업의 97.0%를 포함하며, 재배업 대상품목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면적의 95.0%를 포함.
- KREI-KASMO에서는 농업총량인 생산액, 부가가치, 소득의 경우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상이하여 일관적인 통계치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총량 모듈을 일부 수정하였음.

표 3-7. KREI-KASMO 대상품목

	유별	품목명	비고
재배업 (45)	곡물(7)	쌀, 맥류(보리, 밀), 잡곡(옥수수), 두류(대두), 서류(감자, 고구마)	감자: 봄, 여름, 가을
	채소(13)	엽채류(배추, 양배추), 근채류(무, 당근), 조미채소(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김치, 시금치, 상추	배추, 무: 봄, 여름, 가을, 겨울 파: 대파, 쪽파
	과채(9)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멜론, 가지, 풋고추	파프리카는 향후 계획
	과일(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수입과일(오렌지, 기타 열대과일)	기타열대과일: HS code 0801-0804, 레몬

	유별	품목명	비고
	특용 및 기타 작물 (8)	참깨, 들깨, 땅콩, 인삼, 녹차, 화훼(절화, 분화, 기타), 버섯(농산버섯), 약용작물	
축산업 (9)	한우우, 젓소, 낙농,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벌꿀, 사료작물		낙농: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 전지, 탈지)

- 품목별 수급모형에서 균형가격도출은 총수요량(Total Demand)과 총공급량(Total Supply)이 동일할 때 시장균형가격(Market clear price, equilibrium price)이 도출된다는 경제학적 의미를 고려.

$$\begin{aligned} \text{총공급량}(TS) &= \text{국내생산량}(Q) + \text{수입량}(M) + \text{전년 이월량}(BS) \\ \text{총수요량}(TD) &= \text{국내수요량}(D) + \text{수출량}(X) + \text{연말 재고량}(ES) \\ \text{총공급량}(TS) &= \text{총수요량}(TD) \end{aligned}$$

- 모형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총수요량과 총공급량이 균형을 이룰 때 균형가격 도출은 현재 미국 미주리대학의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MU)에서 개발된 계산 방법을 사용.
- 연립방정식시스템(simultaneous equation model system) 하에서 시장청산 균형가격 도출 계산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초과공급(S-D) 또는 초과수요(D-S)가 0이 될 때, 즉 총공급량과 총수요량이 같아질 때(S=D) 시장청산 균형가격을 도출. 예를 들어 old price(P_{i-1})가 높게 설정되었다면 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초과공급(S-D)은 양(+의 값을 취하게 되고, 조정계수(equilibrator) 앞의 음(-)의 부호 때문에 new price(P_i)는 old price(P_{i-1})보다 낮게 되며 이 순환과정은 초과공급(S-D)이 0이 될 때 까지 반복(iteration).

$$P_i = P_{i-1} - \Phi(S_i - D_i)$$

i = 반복횟수 (equilibrator)
 $i = 1 \sim \infty$
 P = 가격
 S = 공급량
 D = 수요량
 Φ = 조정계수

- 이 연구에 사용된 모형내 Model Solution은 Gauss-Seidel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solution control인 조정계수(ϕ)는 사용변수의 단위(unit)에 의존함으로써 add-hoc으로 적절히 사용. 즉, 조정계수가 크면 클수록 적은 반복횟수로 균형가격으로 수렴할 수 있으나, 균형가격이 조정계수 내에 존재할 경우 수렴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 또한 조정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렴의 반복횟수가 늘어나지만 정교하게 균형가격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공급측면에서 작물의 동태적 재배면적(ACR) 반응함수형태는 lagged 부분조정모형을 포함한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과 Koyck의 기하학적 분포시차모형을 기본으로 한 Cagan's 적응적 기대가설 모형(adaptive expectation model)을 이용하여 설정.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전기재배면적, 기대순수익과 생산대체재의 기대순수익임. 기대순수익은 적응적 기대가설을 기본으로 하여 전기가격에 정책보조를 추가하였으며, 여기에 기대단수를 곱하였고, 경영비(cost)를 제외하였고 기대단수는 과거 3개년 평균단수를 사용.

$$ACR_{i,t} = f(ACR_{i,t-1}, \frac{E[return_{i,t}]}{E[deflator_t]}, \frac{E[return_{j,t}]}{E[deflator_t]}) \quad (1)$$

$$E[return_{i,t}] = (price_{i,t-1} + policy_{i,t}) \times (moving\ average\ of\ yield_{i,t-1}) - cost_{i,t-1} \quad (2)$$

$$cost_{i,t} = f(\sum_{j=1}^n \sum_{k=1}^m \delta_j \cdot input_{k,t}), \delta_j = weight \quad (3)$$

- 단수함수의 추정은 기상여건(평균온도, 최저온도,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과 기술적 발전을 대표하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추세(trend)를 사용. 그 외 자본, 토지, 노동 등 개별농가의 단수모형에 도입되는 다른 변수는 모형에서 제외. 또한 구축된 단수함수에서는 다른 내생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모형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음.

$$YD_{i,t} = f(temp_{i,t}, rain_{i,t}, sun_{i,t}, wind_{i,t}, trend) \quad (4)$$

i: 지역
t: 시간
temp: 온도
rain: 강수량
sun: 일조시간
wind: 풍속

- 수입수요함수형태는 각 작물의 기대수입량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 그러나 실제분석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함수형태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식과 같음.

$$import_t = f(domestic price_t, import price_t) \quad (5)$$

$$import_t = f(domestic price_t - import price_t) \quad (6)$$

$$import_t = f(domestic price_t / import price_t) \quad (7)$$

- 무역자유화로 인한 관세 철폐로 해외 농산물의 수입 증대와 이에 따른 국내 농업 생산액 감소 피해액 계측은 수입수요함수로부터 도출되는데 수입수요함수는 국별, 용도별(식용, 사료용)로 구분하여 추정함.
 - 수입수요함수형태는 각 국가별 작물의 기대수입량이 국내가격과 환율, 관세율을 적용한 해당국의 수입가격 및 경쟁국의 수입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음.
 - 각 품목별로 국내 수입하는 수입경쟁국간의 가격탄성치와 대체탄성치를 행렬로 구성하여 우리나라가 동시에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국가별로 수입되는 수입량을 계측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영연방 FTA로 관세철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각 수출국가의 우리나라 국내시장점유율도 예측 가능.
- 한·영연방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 농산물의 수입증대와 이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액 변화분 계측은 파급효과 분석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울 경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도입함.
 - 수입실적이 없는 영연방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 국가별로 수입수요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 국가의 수입수요함수(평균 탄성치)를 이용하였고, 식물검역 등으로 수입이 규제된 일부 품목은 교차탄

성치 가정을 이용하여 영연방 수입량을 계측.

- 국내산 수요에 대한 수입산 가격의 교차탄성치에 대한 가설적 설정은 수요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수요함수의 성질과 수입산과 국내산의 동질성 정도를 고려함. 즉,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의 상대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국내산 농산물 수요의 변화 정도를 국내산 농산물의 수입품 가격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통해 분석.

3. 한·영연방 3국 FTA 파급영향 분석결과

3.1. 한·호주 FTA

3.1.1. 한·호주 FTA 시나리오 설정

- 한·호주 FTA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KREI-KASMO 2013 모형과 2012년도 통계 활용하여 방정식을 추정한 다음,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어 농산물 개방 수준이 이행 기간 및 관세감축률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된다고 가정함.
- 우선 파급영향분석을 위해 크게 기준(Baseline)시나리오와 한·호주 FTA 발효 시나리오(KAFTA)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기준(Baseline) 시나리오는 2015년 이후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이 현재 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상의 양허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였고, 한·EU FTA, 한·미 FTA 등 기체결 FTA는 현행 양허기준을 적용하였음.
 - 한·호주 FTA 발효 시나리오(KAFTA)는 기준 시나리오에 한·호주 FTA가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한·호주 FTA 협상 타결 양허안을 적용하였음.

표 3-8. 한·호주 FTA 영향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양허유형
기준 시나리오 (Baseline)	기체결 FTA 현행 양허 수준
한·호주 FTA 시나리오 (KAFTA)	기체결 FTA 현행 양허 수준 + 한·호주 FTA 타결안

- 한·호주 FTA가 국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 (Baseline)와 발효 시나리오(KAFTA)의 차이를 한·호주 FTA에 따른 생산액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2015년부터 향후 15년(2029년)까지 전망하였음.

3.1.2. 한·호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 한·호주 FTA 타결에 따른 호주산 농산물 수입 증가(대체효과 포함)로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15년간(2015~2029년) 연평균 1,102억 원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평균 농업 생산 감소액은 2015~2029년 평균 농업 총생산액의 0.225%에 해당함.
 - 누적 생산 감소액은 이행 15년간(2015-2029년) 약 1조 6,523억 원으로 분석됨.

표 3-9. 한·호주 FTA 타결에 따른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단위: 십억 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5년 누계
총 농업생산액	-110.2	-38.3	-105.8	-186.3	-1,652.3
재배업	-20.2	-11.6	-22.9	-26.3	-303.6
- 곡물류	-12.0	-7.6	-13.0	-15.2	-179.5
- 채소류	-5.6	-2.6	-7.2	-7.0	-83.9
- 과실류	-0.0	-0.0	-0.0	-0.0	-0.2
- 특약용, 기타	-2.7	-1.3	-2.7	-4.1	-40.1
축산업	-89.9	-26.7	-82.9	-160.0	-1,347.8
- 쇠고기	-63.0	-15.0	-57.0	-117.0	-945.4
- 돼지	-14.2	-6.0	-13.7	-22.8	-212.7
- 육계	-10.1	-4.2	-9.7	-16.4	-151.3
- 낙농품	-1.3	-0.9	-1.3	-1.8	-19.7

주1. 특약용, 기타에는 인삼, 유지류, 차, 버섯, 화훼류 등 포함

- 산업별로는 축산업이 한·호주 FTA 타결로 인한 생산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재배업도 상당 수준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축산업 피해액은 이행 5년차(2019년)에 485억, 이행 15년차(2029년) 1,991억 수준으로 전망됨.
 - 재배업은 이행 5년차(2019년)에 185억, 이행 15년차(2029년) 270억 원까지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세부 품목별로는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국내 쇠고기 생산감소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⁴⁾.
 -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우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이행 15년차를 기준으로 농업총생산액 감소분의 64%를 차지함.
- 한·호주 FTA에 따라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이행 15년차(2029년)의 쇠고기

4) 농축산물 중 한·호주 FTA에서 가장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입수요함수를 미국, 호주, 기타 국가 쇠고기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각국의 FTA 양허안에 따라 관세가 연차별로 감축되나,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율은 현행 MFN 관세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분석결과는 한·호주 FTA에 따른 우리나라 쇠고기의 생산감소효과와 수입쇠고기의 전환효과 및 창출효과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였음.

생산감소액은 1,466억 원으로 기준 시나리오의 2029년 쇠고기 생산추정액인 4조 8,676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임.

- 따라서 한·호주 FTA가 2015년에 발효될 경우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호주 FTA 발효 5년차에는 호주산 수입량이 5천 톤, 10년차에는 1만 톤, 15년차에는 만 7천 톤이 각각 순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됨.
 - 반면, 미국산 수입량은 호주산으로 수입전환이 이뤄져 5년차에 3천 톤, 10년차에 7천 톤, 15년차에 1만 톤이 각각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호주산 쇠고기 수입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생산을 일정 부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행 5년차에 국내 생산량에 1천 톤, 10년차에는 2천 톤, 15년차에는 4천 톤 가량의 생산량을 각각 감소시키는 과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결국,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산과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 쇠고기를 대체하는 수입전환효과(15년 평균 기준 43.1%+15.7%)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인하에 따른 일정 규모의 수입창출 효과(15년 기준 28.9%)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그러나 국내생산을 대체하는 효과(15.3%)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표 3-10. 한·호주 FTA로 인한 쇠고기 생산대체, 수입창출 및 수입전환 효과⁵⁾

단위: 천톤, %

	초기년도 (2015)	5년차 (2019)	10년차 (2024)	15년차 (2029)	평균		
					2015-24	2015-29	
호주산 수입증가량	0.7	5.2	10.6	17.6	8.1	12.2	
① 국내생산 대체효과	6.0%	12.0%	12.5%	15.3%	4.8%	8.0%	
② 수입 전환효과	미국산	41.1%	42.0%	43.5%	43.0%	42.8%	43.1%
	기타국산	15.7%	17.2%	14.4%	12.8%	16.9%	15.7%
③ 순수입 창출효과	49.2%	28.8%	29.6%	28.9%	35.5%	33.2%	
합 계 (①+②+③)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한·호주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일부가 호주산으로 수입전환이 발생하여 기존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쇠고기 생산액 감소폭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쇠고기 외에도 한·호주 FTA 타결시 돼지고기, 육계, 오리 등의 축산물 생산액이 기준 추정치(Baseline)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⁶⁾
 - 한·호주 FTA로 호주산 쇠고기 및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쇠고기 소비는 증가하게 됨. 이 때 저렴해진 쇠고기 가격은 쇠고기 소비창출뿐만 아니라 대체재인 돼지고기 및 닭고기(오리 포함)로부터의 소비대체를 발생시킴.

① 쇠고기 수입량 증가의 1차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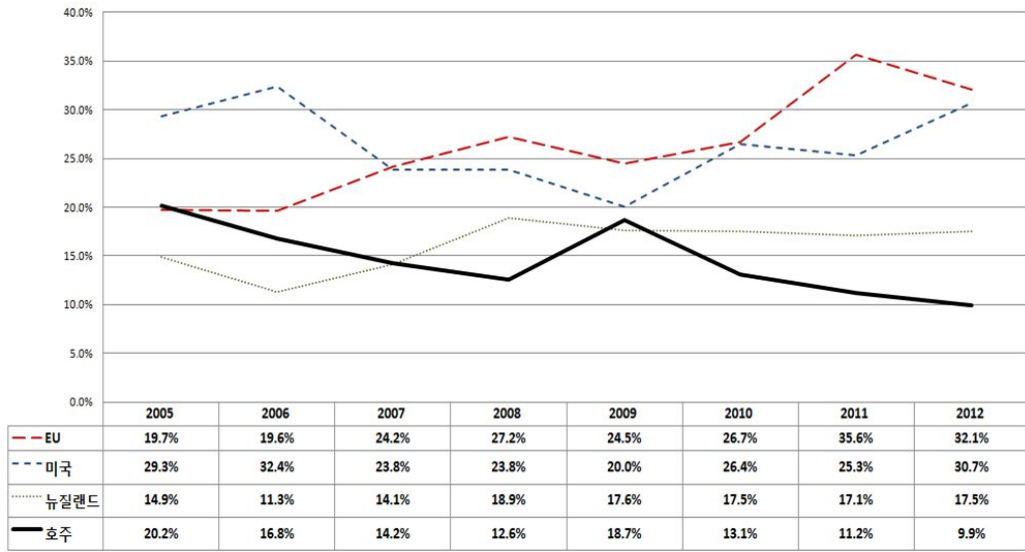
- 수입산 쇠고기 수입 ↑ => 국내쇠고기 유통량 ↑ => 쇠고기 가격 ↓ => 쇠고기 수요(수입산 쇠고기) ↑ =>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요 ↓ =>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 ↓
 -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간의 대체탄력성이 쇠고기와 닭고기간의 대체탄력성보다 크기 때문에 쇠고기 가격하락시 대부분의 경우 돼지고기 가격이 닭고기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됨. 따라서, 2차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싸진 돼지고기로 닭고기 수요가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닭고기는 2차 가격하락이 이루어짐.

②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하락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

- 돼지고기가격 ↓ => 돼지고기 수요 ↑ => 닭고기 수요 ↓ => 닭고기 가격 ↓
 - 2차 파급효과 발생원인: 1차 파급효과에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이 닭고기 가격하락폭 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닭고기의 돼지고기로의 수요전이가 발생
- 낙농품의 경우 대부분 양허제외 내지 장기철폐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낙농품 수입에서 미국과 EU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호주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6) 이들 품목이 쇠고기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육류소비 대체효과임. 실제로 호주로부터 이들 품목이 수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모형에 이들 품목의 관세인하 스케줄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쇠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그림 3-1. 낙농품의 연도별·국가별 수입비중 추이



주. HS 0401~0406의 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곡물 중에서는 맥류(보리)와 서류의 생산액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두의 경우도 TRQ 제공에 따른 생산 감소가 전망됨.
 - 맥주보리의 경우 현행 양허관세 513%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는 효과가 작용하여 동계작물로 작목전환이 이뤄져 마늘(33억)과 양파(23억)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⁷⁾
 - 칩용 감자 수입증가는 국내산간 소비대체가 발생하여 국내산 서류(감자)의 생산 감소 및 가격 하락 전망.⁸⁾
 - 식용두류 TRQ 500톤 제공에 따른 국내산과의 생산(소비)대체 피해 예상.
- 화훼는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철화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훼 생산액에서 철화류가 차지하는 비중(34.8%)과 여기에 우리나라 수입철화시장에서 호주산 비중(0.6%)을 함께 고려하여 시산한 결과, 수입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

7) 최근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5,732ha로 2013년의 4,497ha보다 27.5%(1,235ha)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맥주보리 계약단가 인상, 계약재배, 수요처 다변화 등 재배면적 증가요인 발생에 기인함.

8) 한편, 국내 감자칩 식품업체들은 우리나라 감자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수미감자를 수매하여 사용 중에 있음.

- 특약용, 기타 품목의 생산액 감소는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삼, 유지류, 차, 버섯 등으로의 과잉생산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간접피해임.
- 특용 및 기타품목의 간접피해는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주된 요인이며, 농산물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증가 폭에 비하여 가격하락 폭이 큼.

표 3-11. 한·호주 FTA 발효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이

단위: 십억 원

	초기년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평균	15년누계
쇠고기	-3.7	-33.3	-78.2	-146.6	-63.0	-945.4
돼지고기	-2.4	-8.1	-17.0	-27.8	-14.2	-212.7
닭고기	-1.9	-5.4	-11.9	-20.2	-10.1	-151.3
서류	-2.0	-5.5	-8.0	-9.2	-6.6	-98.7
마늘	-0.0	-3.4	-4.5	-3.8	-3.3	-49.6
맥류	-0.4	-3.6	-3.8	-3.2	-3.2	-47.8
양파	-0.0	-2.5	-3.1	-2.8	-2.3	-35.2
두류	-0.8	-1.7	-2.5	-3.5	-2.2	-32.8
낙농	-0.8	-1.0	-1.5	-2.0	-1.3	-19.7
오리	-0.2	-0.7	-1.5	-2.6	-1.3	-18.8
총생산액	-12.8	-67.0	-135.0	-226.1	-110.2	-1,652.3

표 3-12 한·호주 FTA 발효 시 농업부문 수출입 증가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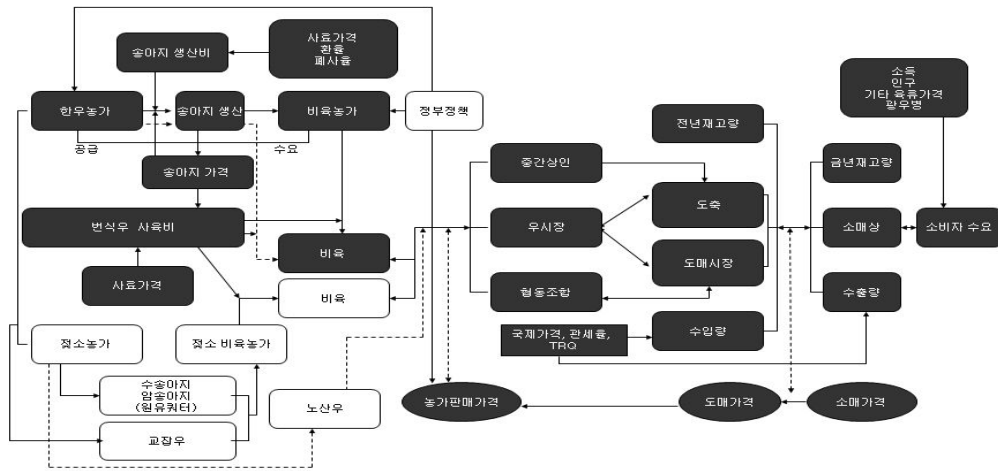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수입 증가	44.7	17.6	43.6	72.9
수출 증가	0.1	0.0	0.1	0.2

표 3-13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단위: 십억 원

	합계					
	축산	과수	채소	특작	곡물	
생산감소액	△110.2	△89.9	△0.0	△5.6	△2.7	△12.0

그림 3-2. KREI-KASMO 한육우 모형 흐름도



3.2. 한·캐나다 FTA

3.2.1. 한·캐나다 FTA 시나리오 설정

- 한·캐나다 FTA의 파급영향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어 개방 수준이 이행 기간 및 관세감축률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된다고 가정함. 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버전 KREI-KASMO 2013 모형을 활용하였음.
- 우선 파급영향분석을 위해 크게 기준(Baseline)시나리오와 한·캐나다 FTA 발효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기준(Baseline) 시나리오에는 2015년 이후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상의 양허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였고, 한·EU FTA, 한·미 FTA 등 기체결 FTA는 현행 양허기준을 적용하였음.
 - 한·캐나다 FTA 발효 시나리오로 기준 시나리오에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결 양허안을 적용함.

- 한·캐나다 FTA가 국내 축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Baseline)와 한·캐나다 FTA 발효 시나리오의 차이를 한·캐나다 FTA에 따른 생산액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2015년부터 향후 15년(2029년)까지 전망하였음.

표 3-14. 한·캐나다 FTA 영향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양허유형
기준 시나리오 (Baseline)	기체결 FTA 현행 양허 수준
한·캐나다 FTA 시나리오	기체결 FTA 현행 양허 수준 + 한·캐나다 FTA 타결안

주: 기체결 FTA는 한-칠레, 한-미, 한-EU FTA 등으로 가정

3.2.2. 한·캐나다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 증가(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포함)로 베이스라인 대비(한·캐나다 FTA가 없을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15년간(2015~2029년) 연평균 320억 원으로 계측되었으며, 이는 2015~2029년 평균 농업 총생산액의 0.07%에 해당함.
 - 누적 생산 감소액은 이행 15년간(2015-2029년) 약 4,806억 원으로 분석됨.
- 부류별로 살펴보면,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축산업이 재배업에 비해 생산액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누적 피해액 중 8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한·호주 FTA의 경우 전체 피해액 중 축산업 비중은 81.6%).

표 3-15. 한·캐나다 발효시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단위: 십억 원

	연평균				15년 누계
		1~5년	6~10년	11~15년	
총 농업생산액	-32.0	-24.0	-32.2	-40.0	-480.6
재배업	-4.7	-3.0	-5.6	-5.6	-71.2
- 곡물류	-3.7	-2.5	-4.3	-4.4	-55.8
- 채소류	-1.0	-0.5	-1.3	-1.2	-15.2
- 과실류	-0.0	-0.0	-0.0	-0.0	-0.2
- 특약용, 기타	-0.0	-0.0	-0.0	-	-0.0

	연평균				15년 누계
		1~5년	6~10년	11~15년	
축산업	-27.3	-21.0	-26.6	-34.4	-409.4
- 쇠고기	-4.4	-2.8	-4.4	-5.8	-65.5
- 돼지	-20.1	-15.5	-19.5	-25.2	-301.2
- 육계	-2.1	-2.0	-1.9	-2.4	-31.4
- 낙농품	-	-	-	-	-

주. 특약용, 기타에는 인삼, 유지류(참깨, 들깨, 땅콩), 차, 버섯, 화훼류 등 포함

-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201억 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쇠고기(44억 원), 두류(30억 원), 육계(21억 원), 맥류(7억 원), 오리(7억 원), 마늘(5억 원), 양파(4억 원)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됨.
- 축산업은 발효 이후 15년 평균 273억 원의 생산 감소 예상되며, 이는 동기간 평균 축산업 총생산액의 0.13%에 해당하는 수준임.
- 돼지고기는 캐나다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량증가로 국내가격 및 생산량이 하락(직접효과)하고, 소비대체재인 국내산 쇠고기 및 수입산쇠고기 가격하락(간접효과) 등으로 연평균 201억 원(15년 누적피해 3,012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 이는 2015~2029년 평균 돼지고기 생산액의 0.3%를 차지함.
 - 2011~13년 평균 수입량 기준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에서 캐나다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는 kg당 5달러 이상으로 경쟁 수입국인 미국보다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FTA 발효 이후에 캐나다산 돼지고기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쇠고기의 경우도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쇠고기 관세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체수요 발생으로 인한 간접 피해임. 쇠고기는 연평균 44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2015~2029년 평균 쇠고기 생산액의 0.1%를 차지하는 수준임.
 -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최근에 수입이 재개되어, 현재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13년 평균

- 기준으로 0.4%에 불과함. 그러나 외식업체를 통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현재 0.4%의 낮은 수입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광우병 발생 이전의 수입점유율 3%대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 외식업체를 통한 수요가 가계 수요로 이어졌듯이 향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닭고기, 오리의 생산액 감소는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임.
 - 이들 품목이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돼지고기 및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소비대체관계에 있는 닭고기, 오리 등의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재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15년 평균 47억 원 수준이며 이는 동기간의 재배업 총생산액의 0.02%에 해당함.
 - 곡물류⁹⁾의 경우 맥류(관세감축, TRQ 제공)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 맥류 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
 - 맥류는 연평균 7억 원(15년 누적피해 11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
 - 국내산 맥류가격하락으로 맥류의 재배면적 감소량은 양허제외인 동계작목(마늘, 양파)으로 작목 전환되어 과잉생산이 심화되는 간접피해(마늘/양파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주된 요인이며, 농산물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증가 폭에 비하여 가격하락 폭이 큼)가 예상됨. 따라서 채소류의 생산액 감소는 마늘 및 양파 중심으로 나타날 전망. 마늘은 연평균 5억 원(15년 누적피해 81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양파는 연평균 4억 원(15년 누적피해 65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
 - ※ 한·캐나다 FTA로 맥류의 생산량 감소는 연평균 0.5% 감소하며, 가격은 연평균 0.7%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마늘, 양파의 재배면적은 맥류로부터의 작목전환으로 연평균 0.1% 증가하며, 면적증가로 가격은 연평균 0.2%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

9) 곡물류는 밀, 쌀, 보리, 수수, 잡곡, 서류 등으로 구성

※ 상대적으로 직접피해인 맥류보다 마늘, 양파의 간접피해규모가 큰 것은 가격 및 생산량 규모 즉, 생산액이 크기 때문임. 2012년 기준 맥류 생산액은 1,110억 원인 반면, 마늘은 6,061억 원, 양파 3,806억 원 임.

- 한·캐나다 FTA로 두류의 생산액 감소는 TRQ 제공에 따른 수입증가에 기인함. 캐나다 식용대두의 경우 현행 관세율 487%에서도 수입이 증가 되고 있어 TRQ 증량(관세율 0%)만큼 수입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2011~13년 평균 대두 수입량은 115만 톤임. 이 중 식용대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수준이며,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임.
 - 캐나다산 대두 수입은 동기간, 1만 3천 톤 수준으로 전체 대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대두는 식용대두이며, 식용대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3-16. 한·캐나다 FTA 발효 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이

단위: 십억 원

	초기년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평균	15년누계
돼지고기	-15.7	-16.4	-21.8	-27.0	-20.1	-301.2
쇠고기	-2.1	-3.9	-5.0	-6.3	-4.4	-65.5
두류	-0.7	-2.9	-3.6	-3.6	-3.0	-44.5
육계	-3.0	-1.6	-2.1	-2.5	-2.1	-31.4
맥류	-0.1	-0.9	-0.8	-0.7	-0.7	-11.0
오리	-0.8	-0.5	-0.7	-0.9	-0.7	-10.6
마늘	-0.0	-0.6	-0.7	-0.6	-0.5	-8.1
양파	-0.0	-0.5	-0.6	-0.5	-0.4	-6.5
토마토	-0.0	-0.0	-0.0	-0.0	-0.0	-0.3
딸기	-0.0	-0.0	-0.0	-0.0	-0.0	-0.3
총생산액	-22.6	-27.4	-35.5	-42.2	-32.0	-480.6

주: 15년 누계 피해액 기준 상위 품목

표 3-17. 한·캐나다 FTA 발효 시 농업부문 수출입 증가액

단위: 백만 달러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수입 증가	1.4	1.1
수출 증가	0.0	0.0	0.0	0.0

표 3-18.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단위: 십억 원

	합계	축산	과수	채소	특작	곡물
		생산감소액	△32.0	△27.3	△0.0	△1.0

3.3. 한·뉴질랜드 FTA

3.3.1. 한·뉴질랜드 FTA 시나리오 설정

- 한·뉴질랜드 FTA의 파급영향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어 개방 수준이 이행 기간 및 관세감축률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된다고 가정함. 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버전 KREI-KASMO 2013 모형을 활용하였음.
- 우선 파급영향분석을 위해 크게 기준(Baseline)시나리오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기준(Baseline) 시나리오는 2015년 이후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상의 양허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였고, 한·EU FTA, 한·미 FTA 등 기체결 FTA는 현행 양허기준을 적용하였음.
 - 한·뉴질랜드 FTA 발효 시나리오로 기준 시나리오에 한·뉴질랜드 FTA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결 양허안을 적용함.
- 한·뉴질랜드 FTA가 국내 축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Baseline)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시나리오의 차이를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생산액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2015년부터 향후 15년(2030년)까지 전망하였음.

표 3-19. 한·뉴질랜드 FTA 영향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양허유형
기준 시나리오 (Baseline)	기체결 FTA 현행 양허 수준
한·뉴질랜드 FTA 시나리오	기체결 FTA 현행 양허 수준 + 한·뉴질랜드 FTA 타결안

3.3.2. 한·뉴질랜드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뉴질랜드산 농산물 수입 증가(대체효과 포함)로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15년간(2016~2030년) 연평균 237억 원으로 계측되었으며, 이는 동기간 농업 총생산액의 0.048%에 해당함. 누적 생산 감소액은 이행 15년간(2016-2030년) 약 3,558억 원으로 전망됨.
- 부류별로 살펴보면,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영향이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축산업 중에는 낙농, 쇠고기, 돼지, 육계의 순으로 생산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 재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15년 평균 9억 원 수준이며 이는 동기간의 재배업 총생산액의 0.003%에 해당함.
 - 축산업은 발효 이후 15년 평균 228억 원의 생산 감소 예상되며, 이는 동기간 평균 축산업 총생산액의 0.112%에 해당하는 수준임.

표 3-20. 한·뉴질랜드 발효시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단위: 십억 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5년 누계
총 농업생산액	-23.7	-14.6	-24.0	-32.6	-355.8
재배업	-0.9	-0.6	-1.2	-1.1	-14.2
- 곡물류	-0.0	-0.0	-0.0	-0.0	-0.0
- 채소류	-0.3	-0.2	-0.4	-0.4	-5.0
- 과일류	-0.6	-0.4	-0.8	-0.7	-9.2
- 특약용, 기타	-0.0	-0.0	-0.0	-0.0	-0.0

	연평균	15년 누계			
		1~5년	6~10년	11~15년	
축산업	-22.8	-14.0	-22.8	-31.5	-341.6
- 쇠고기	-8.4	-2.2	-8.2	-14.7	-125.7
- 돼지	-2.2	-1.1	-2.2	-3.2	-32.5
- 육계	-1.1	-0.6	-1.1	-1.7	-17.1
- 낙농품	-10.9	-10.0	-11.1	-11.7	-164.2

주. 특약용, 기타에는 인삼, 유지류, 차, 버섯, 화훼류 등 포함

- 품목별로는 낙농, 쇠고기, 돼지, 육계, 키위, 오리, 호박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됨.
 - 낙농의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109억 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한육우(84억 원), 돼지(22억 원), 육계(11억 원), 키위(6억 원), 호박(2억 원), 오리(1억 원)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됨.
- 특히,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증가는 낙농가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낙농(원유)생산액 감소분은 2015~2029년 연평균 원유 생산액의 약 0.509%에 해당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저렴한 수입 유제품 증가는 유제품용으로 이용되던 원유의 수요 감소를 야기하여 중장기적으로 낙농가의 원유생산 쿼터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유제품의 관세 인하 또는 TRQ 증량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국내시장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의 국내산 원유 수요 감소로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낙농가의 원유수취가격은 ① 쿼터내 물량에 주어지는 가격과 ②쿼터 초과물량에 주어지는 가격의 가중합으로 결정됨.

① 쿼터 물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원유생산원가와 원유생산이윤의 합에 의해 결정됨(낙농진흥회). 따라서 FTA 등 시장개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② 반면, 쿼터량을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 수입유제품(분유)에 준하는 가격을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산양유도 수입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돼지와 육계의 생산감소는 쇠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소비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2015~2029년 평균 돼지와 육계 생산액의 0.032%, 0.036%를 차지하는 수준임. 이는 FTA로 뉴질랜드산 쇠고기 및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 때 저렴해진 쇠고기 가격은 쇠고기 소비창출뿐만 아니라 대체제인 돼지고기로 부터의 소비대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임.
 - 그외 농산물이 우리나라 2015~2029년 평균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쇠고기의 경우 0.145%, 키위와 호박은 각각 1.01%, 0.071%로 전망됨.
- 호박은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시기가 우리나라 생산시기와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수입 물량 비하여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단호박은 애호박과 달리 저장성이 높아 우리나라 생산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최근 단호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뉴질랜드산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 뉴질랜드산 단호박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뉴질랜드의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이 위축되었으나, 뉴질랜드산 키위 경쟁력이 높아 생산이 회복되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산 키위(참다래)는 최근 생산이 증대하고 있는 품목이나 향후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이 증가하면 생산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표 3-21. 한·뉴질랜드 FTA 발효 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이

단위: 십억 원

	초기년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평균	15년누계
낙농	-10.2	-10.4	-11.5	-12.0	-10.9	-164.2
한육우	-0.2	-4.4	-10.8	-17.5	-8.4	-125.7
돼지	-0.4	-1.7	-2.6	-3.7	-2.2	-32.5
육계	-0.2	-0.9	-1.3	-2.0	-1.1	-17.1
키위	-0.1	-0.6	-0.8	-0.6	-0.6	-9.0

	초기년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평균	15년누계
호박	-0.1	-0.3	-0.3	-0.3	-0.2	-3.5
오리	-0.0	-0.1	-0.2	-0.2	-0.1	-2.1
총생산액	-11.2	-18.5	-27.6	-36.4	-23.7	-355.8

주: 15년 누계 피해액 기준 상위 품목

표 3-22. 한·뉴질랜드 FTA 발효 시 농업부문 수출입 증가액

단위: 백만 달러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수입 증가	9.8	8.8	9.7	10.8
수출 증가	0.1	0.1	0.1	0.1

표 3-23.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단위: 십억 원

	합계					
	축산	과수	채소	특작	곡물	
생산감소액	△23.7	△22.8	△0.6	△0.3	△0.0	△0.0

그림 3-3. KREI-KASMO 젓소 모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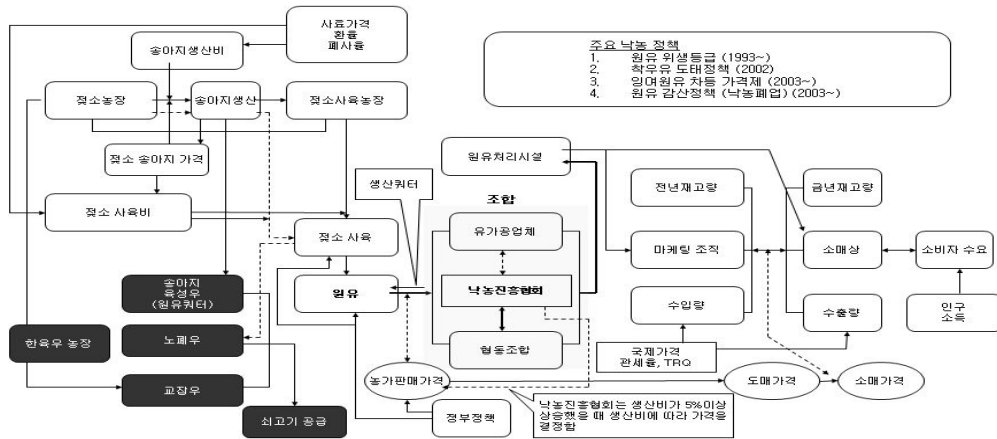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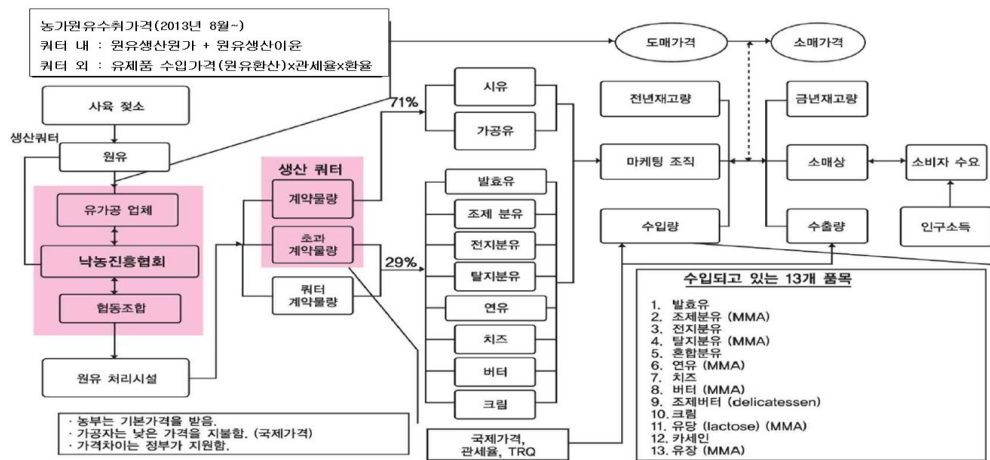


그림 3-4. KREI-KASMO 낙농 모형 흐름도



3.4. 영연방 3국 FTA의 파급 영향

- 영연방 3국 FTA로 인한 농업분야 총 피해는 연평균 1,65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5년 피해 누계는 2조 4,887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피해가 전체 영연방 3국의 피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의 피해는 전체 피해 중 66.4%를 차지함. 캐나다는 영연방 3국 전체 피해의 19.3%, 뉴질랜드는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배업 분야의 피해는 곡물류와 일부 채소류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농산물 피해 중 재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6.6%임.
- 대부분의 피해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업 분야의 피해는 전체 농업 분야 피해의 84.3%를 차지함. 그 중에서 특히 쇠고기 분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쇠고기의 피해는 연평균 758억원이며 이는 전체 축산업 피해의 54.2%를 차지함. 쇠고기 다음으로는 돼지고기가 연평균 365억 원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계 133억 원, 낙농품 122억 원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4. 한·영연방 3국 FTA 발효시 총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단위: 십억 원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연평균	15년 누계	연평균	15년 누계	연평균	15년 누계	연평균	15년 누계
총 농업생산액	-165.9	-2,488.7	-110.2	-1,652.3	-32.0	-480.6	-23.7	-355.8
재배업	-25.8	-389.0	-20.2	-303.6	-4.7	-71.2	-0.9	-14.2
- 곡물류	-15.7	-235.3	-12.0	-179.5	-3.7	-55.8	0	-0.0
- 채소류	-6.9	-104.1	-5.6	-83.9	-1.0	-15.2	-0.3	-5.0
- 과실류	-0.6	-9.6	-	-0.2	-	-0.2	-0.6	-9.2
- 특약용, 기타	-2.7	-40.1	-2.7	-40.1	-	-	0	-0.0
축산업	-140.0	-2,098.8	-89.9	-1,347.8	-27.3	-409.4	-22.8	-341.6
- 쇠고기	-75.8	-1,136.6	-63.0	-945.4	-4.4	-65.5	-8.4	-125.7
- 돼지	-36.5	-546.4	-14.2	-212.7	-20.1	-301.2	-2.2	-32.5
- 육계	-13.3	-199.8	-10.1	-151.3	-2.1	-31.4	-1.1	-17.1
- 낙농품	-12.2	-183.9	-1.3	-19.7	-	-	-10.9	-164.2

주. 특약용, 기타에는 인삼, 유지류, 차, 버섯, 화훼류 등 포함

- 영연방 3국 FTA의 영향이 큰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를 살펴보면, 가장 영향이 큰 품목은 쇠고기이며,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육계, 낙농, 서류, 두류, 맥류의 순으로 나타났음.
- 쇠고기의 연평균 피해액은 758억 원이며, 쇠고기 피해의 83.1%는 호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돼지고기의 연평균 피해는 36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 피해 중 55.1%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의 영향이며, 호주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간접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육계의 피해는 연간 133억 원이며, 육계는 대부분 영연방 3국으로의 쇠고기 수입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낙농의 피해는 연평균 122억 원이며, 대부분의 피해는 뉴질랜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음.
- 두류와 서류의 피해는 연평균 각각 52억 원 66억 원으로 나타났음. 두류는 호주와 캐나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류는 호주산 감자의 수입으로 나타

나는 영향임. 한편, 맥류의 피해는 연평균 39억 원이며, 주로 호주산 수입으로 나타나는 피해임.

- 양파와 마늘은 동계작물인 맥류의 피해로 인한 대체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간접피해가 큰 이유는 양파와 마늘이 우리나라 생산액이 크기 때문임.
- 키위와 호박은 뉴질랜드의 영향이며, 각각 연평균 6억 원,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5. 한·영연방 3국 FTA 발효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단위: 십억 원

	영연방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쇠고기	-75.8	-63.0	-4.4	-8.4
돼지고기	-36.5	-14.2	-20.1	-2.2
육계	-13.3	-10.1	-2.1	-1.1
낙농	-12.2	-1.3	-	-10.9
두류	-5.2	-2.2	-3.0	-
서류	-6.6	-6.6	-	-
맥류	-3.9	-3.2	-0.7	-
양파	-2.7	-2.3	-0.4	-
마늘	-3.8	-3.3	-0.5	-
키위	-0.6	-	-	-0.6
호박	-0.2	-	-	-0.2

■ 제 4 장

한·영·연방 3국 FTA 대응
국내대책 방향



제 4 장

한·영연방 3국 FTA 대응 국내대책 방향

1. 농업 분야 국내대응 방향

-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감축, TRQ 제공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축산물을 비롯한 일부 곡물 등임. 따라서 국내 축산농가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클 것으로 판단됨.
- FTA와 같은 시장개방 확대에 직면한 농업부문의 대응 방향은 실질적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계 전체가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의 단기 피해보전 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임.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해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제도임. 폐업지원제는 폐업하는 농가에게 면적이나 사육두수에 따라 3년간의 순수입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폐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폐업 품목이 포함되는 품목군에 대해 향후 5년간 영농을 제한하고 있음.

- 중장기 대책은 크게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체질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들 수 있음.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에는 축산분야의 시설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원예분야의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생산 및 유통조직 규모화·조직화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며, 체질 강화 및 활성화 대책은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과 경영이양직불제의 개편, 식품산업의 육성, 농촌 생활여건 개선, 농촌투융자 촉진, 농촌자원의 산업화 등을 포괄함.

2. 기존 국내보완대책 개선방향

- 단기 피해보전 대책의 폐업지원제는 과거 한·칠레 FTA 대책 당시 칠레산 복숭아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폐업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함. 현재는 폐업지원금의 대상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과급영향을 분석하여 선별’하도록 되어 있음.
- 피해보전직불제는 생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폐업지원제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서로 상충되는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음. 더욱이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유사한 다른 품목에 대한 재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질적인 품목을 재배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규모화나 구조조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폐업지원제도를 한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것 보다는 탈농이나 이농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전반적인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중장기 대책인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강화 및 활성화 지원정책들은 그 동안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보완 또는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정책수단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유사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제시된 대책들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끝으로 많은 농업인들은 정부가 새로운 FTA를 추진·체결할 때마다 발표하는 대책들이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 또는 반복하거나, FTA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조치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농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한·영연방 3국 FTA로 국내 농산물이 개방되는 동시에 영연방 3국의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되는 만큼 국내 농업도 수세적인 입장에 벗어나 적극적으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농업인들의 수출조직화, 신제품 개발, 생산비 절감 등의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함.

3. 축산업부문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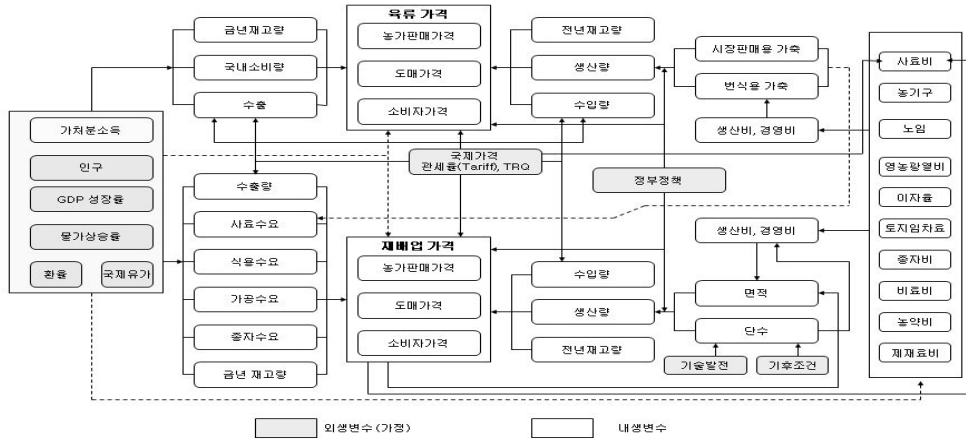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축산물 시장개방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가 2011년 7월에 발효되었고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최근,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FTA도 타결되었음. 한중일 FTA, RCEP, TPP 협상도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미국, 호주, 캐나다, EU, 뉴질랜드 등 축산강국들과의 FTA 체결로 수입 축산물은 더욱 증가하여 국내 축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FTA 추진은 수입 축산물의 관세 감축내지 철폐로 인해 수입가격은 하락하여 수입축산물 수요는 증가하고 국내 축산물 생산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함. 나아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축산물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최근 축산업은 경기침체, 소비부진, 수급불균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가격폭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한·영연방 FTA의 추진에 따른 축산업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FTA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와 축산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한·영연방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여파로 영연방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 피해액은 클 것으로 예상함.
 - 특히, 현재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는 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세감축 이행기간 동안 국내 한육우 생산 감소폭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영연방산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농축산물의 특성(공급 과잉 시 가격 폭락 경향)상 국내 농축산물 가격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영연방산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적은 일부 품목으로 과잉생산이 심화되어 실질 농가소득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
- 한·영연방 FTA로 향후 영연방산 쇠고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파급효과로 국내산 쇠고기 가격도 동반 하락하여 쇠고기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저렴해진 쇠고기 가격은 새로운 쇠고기 소비창출 외에도 대체재인 돼지고기와 닭고기로부터의 소비대체를 발생시킴. 따라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돼지와 육계 생산액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 비중 확대 및 우수브랜드 집중 육성이 필요함.
 - 국내 육류시장에서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고기가 차별화되고 소비기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이 제고되어야 하며, 돼지고기의 품질등급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
 -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가 정착되어 위해요소가 차단되어야 하며, 무(無)항생제 등 안전축산물 생산 선도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속히 항생제 대체 물질을 개발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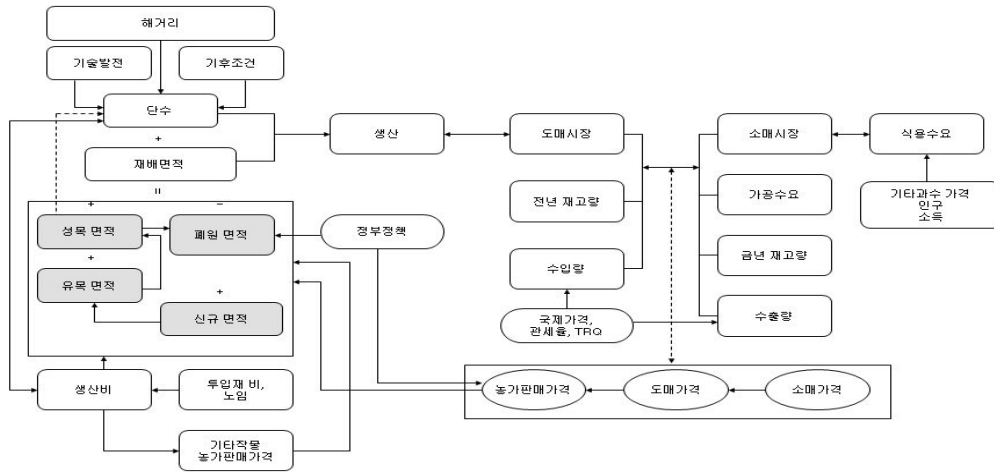
-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축종별 우수 브랜드를 선별하고 소비지시장에서 대표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가축개량과 사육시설 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종축 및 육종 농가 육성을 통한 육질·육량 개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가축능력검정사업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검정사업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시 에너지 효율화시설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축사 개축 및 신축 시 축사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음. 따라서 축사시설 지원 대책에 계분보일러 이용, 축사지붕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효율화시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축사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제역, AI 등의 전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소모성 질병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하며, 종돈 및 인공수정센터의 질병 청정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 축산농가에게 축산경영, 수의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종합 진단이 필요함. 따라서 농가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축산물의 수급안정 기반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축산물 생산이력 추적제를 확대 적용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으로 수입축산물의 부정유통이 차단되어야 함.
 -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 자조금은 국내 축산물 소비홍보 및 수급조절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류의 대체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육류별로 별도로 실시되고 있어 축산자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축사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역별 친환경 축산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기준 강화로 많은 축사가 제한구역 내에 위치, 이로 인해 FTA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중

- 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축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축산법’에 가축사육 제한의 규제범위와 조건을 명시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로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국·공유지, 간척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축산계열화 활성화로 국내산 축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축산계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계열업체와 축산농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및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인 축산물 대형패커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축장의 구조조정 사업이 촉진되어야 함.
- 위해축산물의 신속한 회수 등을 위해 국내·수입축산물 이력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축산물 유통업소의 전자신고 의무화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음.
 - 축산농가의 소득 창출 확대를 위한 말산업 육성과 관광 및 레저를 연계한 수익 창출 모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물용의약품 수출지원 등 축산업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 수출가능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대 영연방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수출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고부가가치 농축산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영연방시장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부도 1. KREI-KASMO 모형의 구조



부도 2. KREI-KASMO 과수 모형 흐름도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강준구, 2005. “한국·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 세계경제 Focu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혜정 외. 2006. “한-MERCOSUR FTA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오복 외. 2004.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연구보고 R5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도형 외. 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완배 외. 2008.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김충실 외. 2007. 한·미 FTA 이행년차별 영향 분석, 48권3호, 농업경제연구
- 김태훈 외. 2009.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C2009-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한호 외. 2004. “한-캐나다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 김홍중 외. 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영숙 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협동연구시리즈 0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춘걸 외. 2003. “한·칠레 FTA 발효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 신재근. 2007.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 문한필 외. 211 “한·호주 FTA 주요 농산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8
- 양평섭 외. 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0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어명근 외. 2004a. “한·중·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협동연구시리즈 04-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4b. “한·E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C2004-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6a. “한·중 FTA 영향 분석”, C2006-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6c. “한·EU FTA 영향분석”, C2006-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8a.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C200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8b.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03-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대섭 외. 2008.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C2008-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현 외. 2007. “한·EU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 인천대학교.
- 이욱. 2005. “한국·칠레 FTA 1년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CEO Focus 제153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장규 외.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06-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식. 2005. “한국·칠레 FTA 체결 후 교역동향 변화 분석”, 정책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송수 외. 2008. “한·GCC FTA 협상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C200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민. 2007. “한·EU FTA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책”
- 정인교.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세균 외. 2002a.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2b.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C2002-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4. “한·일 FTA 농업분야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R4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6a. “농업부문 FTA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C2006-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6b.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구축”, C200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6e. “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수립과 D/B 보완연구”, C2006-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9.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현황과 전망”, P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2c.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정책연구보고 P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2006d. “농업부문·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농정연구속보, 제 30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김윤식. 2006c. “한·칠레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 2006-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이대섭.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P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허주녕. 2005.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농정연구속보, 제 23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4, 2007, 2008, 2009, 2010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양정자료. 각 연도.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ABS, “International Trade”, Australia, 2010.
-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2011.
-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RS database(<http://www.dfat.gov.au>)
- FAO. FAOSTAT(www.fao.org).
- OECD, “Thematic reviews on risk management: Australia” TAD Working paper, 2010.
- WTO(<http://www.wto.org>)